문화나누美

예술타리

〈문화나누美 '예술타리'〉는 '나누면 누구나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예술활동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자들의 예술활동을 지켜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아름다운 문화 세상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얘기[藝術寄附]해요! 휴대전화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하늘다리

丙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 | 01/02 | VOL. 52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안산문화재단 ART-CULTURAL ENERGY

| 시가 있는 풍경 |

〈사진: 김선광〉

1월의 기도

– 윤 보 영

사랑하게 하소서
담장과 도로 사이에 핀 들꽃이
비를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새벽잠을 깬 꽃송이가
막 꽃잎을 터뜨리는 향기로
사랑하게 하소서

갓 세상에 나온 나비가
꽃밭을 발견한 설렘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바람이 메밀꽃 위로
노래 부르며 지나가는 여유로
서두르지 않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그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늘 처음처럼, 내 사랑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C · O · N · T · E · N · T · S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2016 | 01/02 | VOL. 52

SPECIAL

08 **인터뷰** _ 백남준아트센터 서진석 관장
12 **ASAC 초대석** _ 배우 박호산

ASAC STAGE

18 2016년 공연 Line-up
24 **뮤지컬** _ 〈안녕?! 로맨스〉

CULTURE TREND

28 **테마가 있는 미술** _ 가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33 **테마가 있는 공연** _ 무대와 스크린
38 **테마가 있는 음악** _ 오페라와 영화
43 **칼럼** _ 노년기 치매의 이해와 음악치료 상담

REST

50 대부도 _ 종이미술관
55 Fluxus, 기억하는 백남준
60 독립출판의 세계

NEWS

66 2016년 단원미술관
68 단원미술관 _ 겨울 교육프로그램 운영
70 에릭사티 출연진 새해인사
72 하늘다리 _ 독자들이 보내온 글

발행일 2016 01·02월호(통권 제52호) · 비매품 **발행처** (재)안산문화재단 **발행인** 제종길 **기획** 기획홍보부 김선광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전화** 080-481-4046 **팩스** 031- 481- 4021 **홈페이지** www.ansanart.com

「**하늘다리**」는 무지개를 뜻하는 말로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하는 안산문화재단의 의지입니다

2016. 01 (JANUARY)

공연은 기획/대관으로 구분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대관 안산시립국악단 신년음악회 19:30/해돋이극장 대관 단원고 합창대회 14:30/달맞이극장	8 기획 청소년 극단고등어 뮤지컬 〈안녕?! 로맨스〉 15:00, 19:00/별무리극장	9 기획 청소년 극단고등어 뮤지컬 〈안녕?! 로맨스〉 15:00, 19:00/별무리극장 대관 이은미 콘서트 19:00/해돋이극장
10 기획 청소년 극단고등어 뮤지컬 〈안녕?! 로맨스〉 15:00, 19:00/별무리극장 대관 이은미 콘서트 17:00/해돋이극장		12	13		15 대관 와글와글콘서트 18:00/달맞이극장	16 대관 이승환 콘서트 18:00/해돋이극장 대관 남윤지 제자음악회 18:00/달맞이극장 대관 정기연주회 13:00/별무리극장
17	18	19 대관 신년음악회 19:00/해돋이극장	20 대관 한호전 졸업식 11:00/해돋이극장	21 대관 발표회 18:30/달맞이극장	22 대관 예술제 18:00/별무리극장	23 대관 타악콘서트 15:00,19:00/달맞이극장
24 대관 강기만 색소폰 콘서트 15:00/별무리극장	25	26	27	28	29	30
31						

2016. 02 (FEBRUARY)

공연은 기획/대관으로 구분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상반기 무대안전점검 2.1 ~ 2.6	4	5	6
7	8 설 연휴 2.6 ~ 2. 10	9	10	11	12	13
14 대관 정기연주회 18:30/별무리극장	15	16	17	18 대관 꿈동산음악학원 정기연주회 18:00/별무리극장	19	20 대관 난타콘서트 19:30/해돋이극장 대관 벨라드떼 정기연주회 17:00/달맞이극장 대관 SLP어학원 13:00,17:00/별무리극장
21 대관 SLP어학원 13:00,17:00/별무리극장	22	23	24	25	26	27 대관 겨울왕국2 11:00,14:00,16:00/달맞이극장
28 대관 겨울왕국2 11:00,14:00,16:00/달맞이극장	29					

※ 공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80-481-4000

SPECIAL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인터뷰
08 백남준아트센터 서진석 관장

초대석
12 배우 박호산

공공을 위한 문화예술의 새로운 실험무대 백남준아트센터 서진석 관장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산 시민분들에게 신년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새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들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백남준아트센터가 용인이라는 지역을 넘어 경기도가 자랑하는 문화적 랜드마크로 자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요?

첫째는 백남준 선생님이 지금까지 세계미술계에서 이룩하신 업적의 후광입니다. 둘째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구요. 셋째는 백남준아트센터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넷째는 지금까지 백남준아트센터를 이끌어 오신 전임 관장님들과 구성원 여러분들의 역량과 아트센터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통해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미디어 아트의 대가인 백남준 선생님의 예술세계 체험이구요, 또한 동시대 미디어 아트의 향유 기회와 교육적 체험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대중들에게는 문화적 즐거움과 유아, 청소년들에게는 창의성 증대가 가능할 겁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비전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요?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은 그 말이 뜻하는 바와 같이 마치 선생님의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그분의 예술과 철학이 머물러 있어 항상 그를 만날 수 있는 집, 그러면서도 과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발상의 전환과 창조가 이루어져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미술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박물관과 아트센터들이 존재합니다. 이들과 다른 백남준아트센터만의 특별한 의의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백남준 아트센터는 다양성, 전지구성, 융합성, 실험성을 추구하는 21세기형 후기 매개공간을 지향합니다. 또한 21세기 혁명과도 같은 사회 전환의 시기에 디지털 미디어 사회의 예술과 담론을 끊임없이 제시하며 선도하는 새로운 개념의 신 미디어아트센터입니다.

백남준 선생님을 기억하고 즐길 수 있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주세요. 저희 아트센터는 항상 낮은 자세로 열려 있습니다. 오시면 전시 이외에 공연, 교육, 세미나, 출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백남준 선생님을 쉽게 만나실수 있을 겁니다.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아트센터의 모범적 기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트센터는 실험성, 독립성, 비영리성이 기반이지만 공공의 예술기관입니다, 즉 실험성을 추구하며 세계 예술계를 선도, 새로운 무브먼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쉽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트센터가 되어야합니다.

최근 많은 아트센터들이 지역과 상생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백남준아트센터는 어떤 차별화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백남준아트센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지역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다면?
첫째는 전시를 위한 다양한 소통방식 개발입니다. 예를 들면 양방향 도슨트 프로그램 개발, 향유자 우선의 전시장 조성, 보다 쉬운 전시 해설지 발간 등입니다. 둘째는 경기도민을 1차 대상으로 하는 예술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셋째는 실험성과 대중성을 둘 다 공유할 수 있는 전시 개발입니다. 넷째는 경기도민을 위한 다양하고 다각도적인 전시 홍보방법 개발입니다

백남준 선생님이 우리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히 말할 수는 없는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인간, 기술, 자연과의 조화와 융합, 전 세계인들의 화합과 공생, 과거, 현재, 미래를 공유시키는 신 세계관의 제시라 할 수 있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지극히 공공적인 가치가 공존하고 있는 듯 한데요.
과거 백남준아트센터가 형식이나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지역과 다소 고립되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개인적인 아트센터라 대중에게 비추어 질수도 있었는데요. 저는 8년 밖에 안 된 신생 아트센터가 앞으로 그러한 이미지로부터 서서히 탈피하며 지역과 세계를 넘나드는 공공의 예술기관으로 확장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디어아트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디어아트란 무엇인지요?
테크놀로지입니다. 아날로그의 미스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미래의 양자 테크놀로지까지 이미 21세기, 기술은 수단이 아닌 환경입니다. 즉 자연과도 같이 포스트 인터넷(상시접속)시대에 인간은 기술의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관계가 수단으로부터 환경을 지나 완벽한 공유까지 테크놀로지와 함께하는 모든 예술을 미디어아트라고 단편적이나마 칭할 수 있겠지요.

미디어 친화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미디어아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21세기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감각, 다감각, 통감각적인 감각의 확장을 경험하며 진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미적 가치관은 저희가 가늠한 것 보다 더 나아가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구세대들은 신세대들과는 다르게 자연적인 체험 습득이 아니라 다소 인위적인 학습을 통해서 미디어 아트를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광속도적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21세기 사회에서는요.

최근 글로컬(Glocal) 네트워크형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궁금합니다.
20세기, 신자유주의시대 글로벌화는 불균형화된 네트워크였습니다. 경제적 헤게모니 아래에 예술의 글로벌화가 진행되었던 것이지요. 즉 지역 간의 문화 위계를 인정하며 서구 주도의 세계화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21세기에는 경제적, 정치적 헤게모니로부터 독립적인 새로운 수평적 예술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필요하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각 지역 예술의 특성과 정체성이 수평적으로 교차, 교류하며 새로운 글로컬 예술운동을 만드는 것이지요.

신년을 맞이해 미디어아트의 변화 및 향후 전망, 그리고 변화에 대한 관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고 진행되고 있지만 생각나는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보다 다양하게 미디어아트의 신이 펼쳐질 것입니다. 둘째는 예술의 경제적 가치 즉 시장 중심의 예술에서 사회, 정치적인 공공예술 활동들이 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겁니다. 셋째는 공동체형 협업 전시가 보다 활발해질 겁니다. 넷째는 아날로그 미디어 아트의 보존, 복원 문제가 보다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겁니다. 다섯째는 보다 복합, 융합적인 전시가 성행할 것입니다. 여섯째는 디지털 아트 아카이빙을 통한 예술 정보, 지식의 공유 문제가 화두 가될 것입니다.

백남준 선생님께서 서거한지 벌써 10년이다. 그만큼 대중들의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관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21세기 드림소사이어티시대에 예술과 문화는 이미 사회, 경제의 메인 성장 동력이 되었고요.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가 살아 나아갈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뉴미디어아트는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필연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백남준 키즈들을 위해 열렸던 '슈퍼 전파–미디어 바이러스'전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에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미디어아트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사실 디지털 기술 산업의 인프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광속의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삼성 엘지 같은 기업 등, 하지만 그에 비해 한국은 짧은 미디어 아트의 역사 때문에 일본, 독일에 비해 미디어 아트가 다소 늦게 생성,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디지털 기술 산업의 인프라와 미디어아트 간의 간극은 서서히 좁아지고 수평적 공유가 시작되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한국의 미디어아트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두서없는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며, 안산문화재단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관장님의 의견 및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21세기 한국의 현대미술은 새로운 기회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의 급부상, 디지털산업의 선도 국가, 아시아 미술시장의 확장, 예술 인적 자원 확충 등 내 · 외부의 환경 변화가 한국의 예술계에 많은 기회들을 주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재단이 가시적으로는 지역문화를, 거시적으로는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Actors
Park Ho San

그의 눈을 바라보면 기쁨, 슬픔, 분노, 애잔함, 쓸쓸함이 공존한다.
그 때문인지 그가 분한 19세기 천재 음악가 에릭사티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진다.
이는 아마도 그가 살아온 자신의 인생과 무대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 때문일 것.
이에 배우 박호산과의 대화를 통해 에릭사티를 추억하고
그가 살아갈 배우의 길에 대해 들어보고자 한다.

배우라서 행복한

진짜 배우
박 호 산

연극 같은 삶, 삶과 같은 연극

배우들을 만나 인터뷰 하면서 늘 궁금했던 하나, 그들의 진짜 삶이다. 어찌 보면 전혀 다른 타인의 삶을 무대 위에서 폭발시키는 그들의 진짜 삶 말이다. 이에 배우 박호산을 만나 그 해답을 얻은 기분이다. 이는 그가 살아온 삶 자체가 무대 위 배우로서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

그는 자신의 데뷔작 '겨울 나그네'부터 지금까지 20년째 배우로 살아오고 있다. 어찌 보면 속된 표현으로 예술인으로 살아가기 참으로 팍팍한 나라에서 배우로 살아가기란 참으로 고됐을 터.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 그리고 뚜벅뚜벅 외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문득 떠오르는 궁금증 '어떻게 그 긴 시간 한길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그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보게 된 뮤지컬이 그 시작이었다." 이어 "어찌 보면 배우로 살아가기에 다소 벅찬 환경과 마주할 때도 있었지만 다른 무언가를 대할 관심조차 없었다."며 배우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철학을 쏟아냈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나 스스로가 살아온 삶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워진다.

간절함으로 일궈낸 천생 배우 박호산

배우로 살아오며 그를 가장 괴롭게 했던 시절, 바로 설 무대가 없었던 배우인생 초반 때였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배로우서 뜨겁게 몰두하며 구도자적 삶을 살았을 때도 데뷔 초반으로서 오늘의 그를 있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살아온 덕분인지 올해만 총10여 편의 무대에 오르며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냈다. 과연 10개의 각기 다른 색깔의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박호산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오히려 각기 다른 캐릭터와 마주하며 환기되고 다시 만나는 캐릭터가 더욱 또렷하게 자신에게 입혀진다.

물론 하나의 작품에 몰두하며 좀 더 성숙된 연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배우로 삶을 시작했던 처음이었다. 내 손에서 대본이 놓쳐지지 않기를 바랐고 또한 간절했다. 그래야 내 아이들과 생계해결이 가능할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행복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그의 말을 통해 배우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배우들의 녹록지 않은 삶이 조금이나마 이해된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오롯이 걸어온 자신의 길에 후회는 없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후회 또한 없다. 물론 내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 그 또한 괜찮다."며 천생 배우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모습이다.

믿고 보는 배우 박호산

안산문화재단이 자체 제작한 음악극 '에릭사티'의 초연부터 지금까지 주인공 '에릭사티'로 분해온 배우 박호산은 그의 팬들 사이에서 '믿고 보는 배우'라고 불린다. 그도 그럴 것이 20년이라는 시공간을 살아오며 흐트러짐 없이 한길을 걸어온 그의 삶이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그와의 대화 중 문득 떠오른 궁금증 '과연 에릭사티라는 천재 음악가와 그 사이에 공통분모가 존재하지는 않을까?' 이에 "에릭사티라는 천재 음악가를 알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하지만 칩거의 생을 살았던 에릭사티에 대한 자료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지우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에릭사티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가는 정도라고 생각했다."며 천재 음악가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 에릭사티와의 공통분모란 질문에 대해 답을 대신했다.

반면 인터뷰가 무르익어 가면서 그와 에릭사티의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무언가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사랑이라는 사실이었다. 어찌 보면 궁금증에 대한 다분히도 구태의연한 모범답안일지

> 66
> 유난히 빛나던
> 그의 눈빛은 천생 배우
> 의 눈빛이었다
>
> 강렬하면서도 갈구하는
> 듯한 그 눈빛은 지금도
> 잊히지 않는다
>
> 그것은 타인의 삶을 무
> 대 위서 연기하는 배우
> 의 열정이었다
> 99

모르지만 그와의 만남 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던 감정에 대한 표현이다. 또 오랜 시간 에릭사티를 연기하면서 서로 닮아가고 있는 그를 발견한 타인으로서의 솔직한 고백이다.

무대 위 연결고리, 배우라는 이름으로

"연기자는 연출, 극작가와 달리 그들이 그린 캔버스에 자신의 생각을 덧입혀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가능토록 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어느 작품에 있어 연출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과 관객을 이어주는 예술적 연결고리로 이해하면 빠를 것이다." 그가 규정하는 배우라는 예술가에 대한 규정이다.

이러한 그의 연심(硏尋) 덕에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의 팬들이 늘어나는 이유일지 모르겠다. 한편 배우 박호산은 자신의 팬들을 '식구'라고 표현한다. 다분히 정의롭고 올곧은 그의 성격이 표현되는 대목으로, 연정(戀情)과 같은 서로의 믿음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작 박호산은 이러한 팬들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고맙다. 더불어 바뀌지 말라는 규약으로 알고 그 고마운 마음에 보답해 나가며 연기하겠다."며 스스로에 대한 다짐을 한다.

배우 박호산, 아니 무대 위 연결고리 박호산은 추운 겨울날 언제든 찾아가 소주 한잔 기울이고 싶은 그러한 사람으로,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이성이 공존하는 천생 배우였다. 이러한 그를 우리는 분명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며, 안산 또한 그의 다양한 변신에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Mini Interview

20년차 중견 배우다. 데뷔 당시와 현재 중 어느 모습이 더 만족스러운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뜨겁게 작품에 몰두하던 배우로서의 구도자적 자세는 처음 시작했을 때다. 그리고 현재는 그때의 열정에 약간의 노련미가 더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크게 바뀐 것은 없다. 단지 더 좋은 작품을 만나고픈 열정은 여전하다.

작품에 대한 열정만큼 욕심도 강해 보인다. 만약 이러한 작품이라면 배우라는 삶에 여한이 없겠다고 고민해본 적이 있나?

내가 속한 작품이 아닌 다른 배우의 작품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부분이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어떤 작품에서 내가 아닌 다른 배우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면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을 텐데 등과 같은 것. 이는 다른 배우의 연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가 공부하는 방법이다.

공연과 연기에도 트렌드가 있나?

물론이다. 그 시대의 고민하는 것들이 공연의 트렌드다. 예를 들어 데뷔 때는 관객모독이 트렌드였다. 아마도 갑갑했던 시대적 고민에 대한 투영일 수 있었겠다. 하지만 결국 그 트렌드, 다시 말해 유행이라는 것이 돌고 돌 듯 공연도 마찬가지다. 아쉽다면 공연계에 검열바람이 불고 있다. 매우 유감이다. 또 연기는 시대의 감성에 맞는 자연스러움에 있다.

배우라는 꿈을 꾸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중학교 3학년 때다. 지물포를 운영하시던 아버님이 손님에게 받은 연극표를 건네받았는데, 바로 '햄릿'이었다.
당시 공연에 대한 개념도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탑 조명 아래선 주인공이 대사를 읊던 모습이 무척이나 신선했다. 그렇게 배우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배우여서 행복할 때, 그리고 그 반대일 때가 있나?

배우는 유람선과 같다.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고 연습하며 단련해나간다. 그럴 때 행복을 느낀다. 그 반대는 경제적 문제에 접했을 때와 인지도로 인한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접했을 때 불편하다. 다시 말해 직업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질 때다.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

연기자에 대한 꿈을 형태로 가지지 않기를 바라며 내면을 꿈으로 가졌으면 한다. 더불어 연기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빵이라는 사물에 비교한다면 많이 팔린 빵이 결코 좋은 빵이 아닌 좋은 빵을 만들려는 제빵사의 진심이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민해주길 바란다.

스스로 어떤 배우이길 희망하나?

가구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 에릭사티를 연기하고 있어 그런가?(미소) 첨언 하자면 스스로가 명품이 되고 싶고, 해결사가 되고 싶고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되고 싶다.

향후 나름의 계획이 있다면?

배우의 꿈을 가진 후배들이 그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대학로에 만들고 싶다.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로 겪게 되는 곤란한 상황으로 배우의 꿈을 저버리고 아파하는 후배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안산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많이 침체됐다. 예전 안산을 찾았을 때 느껴졌던 안산만의 특유의 기운이 그립다. 물론 커다란 슬픔을 겪은 후이고 또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일 것이다. 물론 쉽게 아물 수 없는 상처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분명 새로운 희망의 싹은 다시 틀 것이다. 모두 함께 보듬고 아껴가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ASAC STAGE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18 2016년 공연 Line-up

청소년 극단 고등어
24 뮤지컬 〈안녕?! 로맨스〉

안산문화재단,
2016년도 공연 Line-up 프로그램 방향
‘대형’ & ‘이색’

‘명품 공연은 계속된다’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피아노 배틀’,
‘프랑스 로렌 국립오케스트라’ 등

안산문화재단의 명품 기획공연은 2016년도에도 계속된다.
올해 기획공연 프로그램의 방향은 ‘대형’과 ‘이색’으로, 강렬하고 파격적인 대형 · 이색적인 최고의 작품들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맘껏 즐기며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재단 출범 3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더욱 충족하기 위한 공연과 창조적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제작공연 강화 등 대중성과 작품성을 고루 준비, 관객만족도를 한층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물론, 지역문화 활성화의 원동력인 청소년의 관람기회를 넓히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청소년 전용 프로젝트 개발도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청소년 관람료 지원사업 ‘키움티켓’과 연계한 B성년페스티벌, 청소년 맞춤공연, 문화체험학습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도 기다리고 있다.

2016년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프닝 작품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라는 작품 속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의 명대사로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4월)를 뮤지컬로 만나게 된다. 마거릿 미첼이 지난 1936년에 출간한 동명소설에 기반을 두고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스칼렛을 사랑한 연인 레트 버틀러와 전쟁 속에 피어나는 뜨거운 사랑을 담고 있다.

같은 4월에는 신춘음악회 또한 무대에 오른다. 2014년 아픈 기억을 치유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예정이며, 'Remember Forever'를 주제로 온 시민이 함께 잊지 못할 시간을 가질 것이다.

푸르른 5월에는 2006년 초연 당시 올해의 예술상, 대산문학상 희곡상, 히서연극상, 올해의 연극 베스트 3에 선정되며 연극계 상이란 상은 모조리 석권한, 지난 2009년도에 KBS에서 4부작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한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가 무대에 오른다.

6월에는 두 명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매 라운드마다 대결하는 '피아노 배틀(Piano Battle)'이라는 이색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관객은 청중이자 심사위원이 되어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빛나는 연주 실력에 매료될 것이다.

6월에는 재단 지속 사업인 '제6회 ASAC공연예술제'가 개최된다. 지역 극단의 창작 의지를 높이고 콘텐츠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작품들로 구성해 시민들과의 교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8월은 청소년음악회와 몸짓페스티벌이 열린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아이 갓 시리즈' 제3탄 '아이 갓 하모니'로 시리즈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몸짓축제는 올해에는 8월로 자리를 옮겨 더욱 풍성한 레퍼토리를 선보이게 된다.

풍성한 가을 10월에는 한불수교 130주년과 안산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빅 클래식 콘서트가 펼쳐진다. 프랑스 최고 지휘자 쟈크 메르시에(Jacques Mercier) 음악감독이 이끄는 '로렌 국립오케스트라'의 최초 내한공연이 그것이다. 2014년 유럽최고의 음반상인 '디아파종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유럽 음악계의 보석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과 협연할 예정이다.

또, 2005년 초연하여 10주년을 맞이한 뮤지컬 '빨래'가 관객들을 다시 찾는다. 교과서에도 수록된 '빨래'는 서울 변두리 소시민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점을 인정받아 제11회 한국뮤지컬대상 작사상 및 극본상, 제4회 더 뮤지컬 어워즈 작사 · 작곡상 및 극본상을 수상한 창작뮤지컬이다.

연말에는 지난해 창작희곡공모작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과 레퍼토리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이다. 격년제로 시행 중인 희곡공모를 통해 재단의 창작의지를 표출하고 제작 공연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시즌프로그램으로 아침시간 주부들을 위한 커피 한잔의 여유 '아침음악살롱시리즈'와 송년음악회, 우수연극시리즈 등이 기다리고 있어 2016년 한 해도 풍성하고 다채로운 공연들을 안방에서 즐기는 듯한 편안함과 여유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안산문화재단 청소년 극단 고등어

뮤지컬

안녕?! 로맨스

청소년들의 삶과 노래 그들의 이야기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오는 1월 청소년극단 〈고등어〉의
창작뮤지컬 〈안녕?! 로맨스〉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공연한다

고등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어온 청소년극단이다. 2013 워크숍 공연인 마임극 소나기를 통해 안산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견한 뒤 2년동안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난 2014, 2015년 두 차례 오키나와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를 비롯해 춘천마임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참가 했으며 제11회 행복한 세상 전국청소년연극제 단체상 금상 개인상 금상 동상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또 제4회 서울가톨릭청소년연극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년에게 꿈을

청소년극단 고등어는 안산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연기 연출 무대 스테프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모여 직접 공연을 제작 함으로써 자신들의 재능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연극을 교육하고 있는 강사들은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들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품들을 청소년 극단 〈고등어〉를 통해 무대에 올리고 있다.

하이틴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안녕?! 로맨스〉

그동안 제작되어진 대부분의 청소년극들은 왕따, 폭력, 자살, 방황 등 사회 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대다수 였다. 뮤지컬 〈안녕?! 로맨스〉는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로만 바라보는 천편일률적인 시각의 작품을 넘어선 로맨틱 코미디로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살고 있는 삶 그대로를 무대에 옮겨 놓은 작품이다. 지난 12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쇼케이스 공연을 마친 후 관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품을 수정 보완했다.

"전문 배우가 아닌 청소년들이 출연을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작품성과 재미가 떨어지지 않냐 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청소년극단 〈고등어〉의 경우 매회 매진을 기록하며 타 지역에서도 공연을 보러 오는 관람객이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공연을 제작 공연한다. 물론 전문 배우들보다는 경험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청소년의 이야기를 진짜 청소년들이 연기하는 것에 대해 공연에 대한 몰입도는 그 어느 공연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극단 고등어의 공연은 오는 1월 8일~10일 총 6회 공연으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진행된다. 차가운 겨울 청춘들의 푸른 열정과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청소년극단 〈고등어〉의 세 번째 창작 뮤지컬 〈안녕?! 로맨스〉를 찾아보도록 하자.

I 줄거리 I

첫 번째 에피소드. 노답이어도 괜찮아

공부 잘 하는 은아에게 번번이 차이면서도 사랑을 갈구하는 동치. 은아는 동치에게 기말고사 평균 80점 넘으면 생각해보겠다고 조건을 건다. 자타공인 야동킬러 롤폐인 강동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고군분투!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에피소드. 날카로운 첫 키스

순수했던 기남이는 오래 된 여자 친구 나연이만 보면 뽀뽀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다. 나연이는 기남이가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끼며, 권태기라고 오해하게 된다. 물어볼 곳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데…

세 번째 에피소드. 내 소설의 주인공은

조용한 문학소녀 오노을은 인기 남 최용성을 짝사랑하며 자신의 망상노트에 그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쓴다. 용성은 노을에게 유일하게 다가와주는 사람이지만, 같은 반 유리는 그 모습을 질투하며 노을을 구박하고 무시한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을의 망상노트가 반 전체에 공개 되면서 소동이 벌어진다.

CULTURE TREND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테마가 있는 미술
28 가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테마가 있는 공연
33 무대와 스크린

테마가 있는 음악
38 오페라와 영화

칼럼
43 노년기 치매의 이해와 음악치료 상담

자연을 닮은 인간, 인간을 닮은 자연

가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해변의 수도승〉

겨울이 되면 유독 생각나는 그림이 있다. 바로 독일 낭만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가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1774~1840)의 작품들이다. 독일 북부의 항구도시 그라이프스발트에서 태어난 프리드리히는 웅장한 북구의 겨울 풍경을 사실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조화 속에 옮겨놓았다.

광활한 풍경 앞에 선 고독한 인간

한 수도승이 검푸른 바다를 마주하고 서있다. 모래 해변과 검은 바다, 그리고 구름으로 가득 찬 어둑한 하늘이 거대한 수평선을 이루며 펼쳐져 있다. 눈꺼풀이 잘려 나간 듯 견고하게 자리한 수평선을 제외하고는 눈의 초점을 맞출 곳이 없을 만큼 황량한 풍경이다. 수평선을 가르는 유일한 수직선은 왜소하기 그지없는 수도승의 뒷모습이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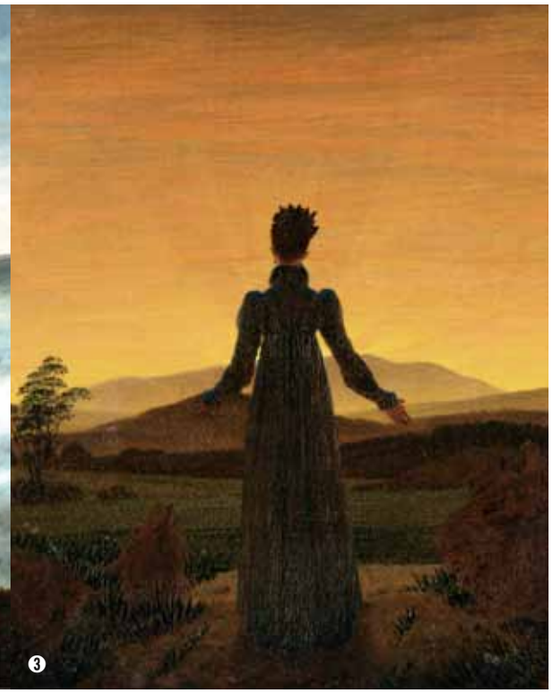
수도승은 마치 세상의 끝에 홀로 선 듯 지독한 고독감과 절망감을 자아낸다. 사실 그림 속의 음침하고 메마른 바닷가는 프리드리히가 어린 시절 자주 여름을 보냈던 발트 해의 뤼겐섬 풍경이고, 사제 복장을 한 수도승의 모습은 실제 프리드리히의 모습과 유사했다고 하니, 결국 해변을 마주하고 선 수도승은 작가 자신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림의 제목은 〈해변의 수도승〉으로 프리드리히가 1810년 베를린 아카데미에서 처음 선보인 작품이다. 프리드리히는 1774년 발트해안의 항구도시 그라이프스발트에서 열 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나 엄격한 프로테스탄트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일곱 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잃고, 이후로 사랑하는 두 누이를 차례로 잃었으며, 또 함께 스케이트를 타던 중 자신이 보는 앞에서 동생이 얼음에 빠져 죽었다. 이 같은 비극적인 경험들은 그를 점차 고독하고 내면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당시의 충격으로 그는 청년이 된 후로도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차갑고 어두우며 외로운 분위기는 아마도 이러한 불우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이 작품에서 배어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프리드리히의 고독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다. 19세기 독일 문화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낭만주의적 경향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유한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비관적 성찰과 병적인 고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이는 중세 시대에 누렸던 독일의 영광은 사라진 채, 프랑스 나폴레옹의 점령군에게 유린당하는 자국의 비관적 상황을 바라보는 독일인들의 절망과 우울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자연에 동화된 뒷모습의 인물들

프리드리히의 처절한 고독감은 다른 작품에서도 발견된다. 〈안개 바다 속의 방랑자〉에서는 벼랑 끝에 선 한 남자가 등장한다.(그림2) 히말라야 고산 정복을 꿈꾸는 산악인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장면이겠지만, 양복을 차려입고 지팡이를 손에 쥔 남자의 모양새를 보니 극적인 정복의 감동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다. 막막한 안개 바다 속에,



❷ ❸

길도 없고, 나무 한그루, 쐐기풀 한포기 조차 없는 황량한 바위 산 끝자락에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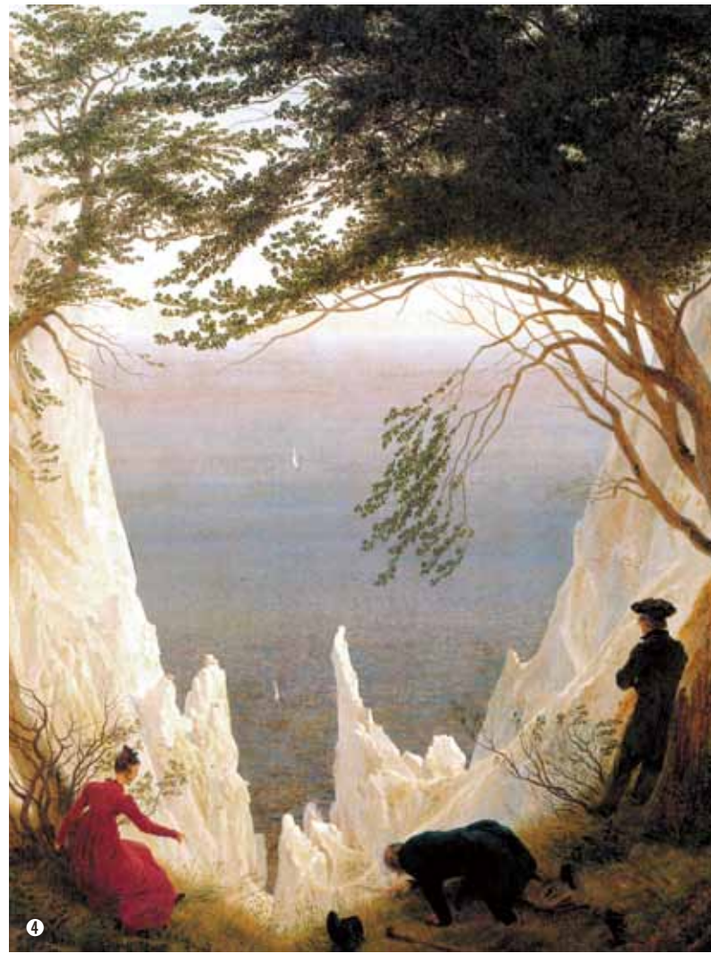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듯도 하고, 포효하는 대자연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절망과 불안에 사로잡힌 듯도 보인다. 아니면 사나운 대자연과 같은 인생의 풍랑에 맞서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려는 것으로 상상해 볼 수도 있다. 등을 보이고 선 탓에 남자의 얼굴을 볼 수 없어 그의 정확한 의중을 읽을 수 없는 대신, 보는 이의 심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흥미로운 그림이다.

프리드리히의 그림에는 이처럼 등을 돌린 채 뒷모습만 보여주는 인물들이 자주 등장한다.(그림3) 이들은 모두 자연과 동화되어 그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프리드리히의 그림을 지긋이 보고 있노라면 어느 순간 검푸른 바다 앞에, 또는 광활한 바위산 위에 서있는 이가 내가 아닐까 하는 상상에 사로잡히게 된다. 누구나 한번쯤은 광활한 자연 앞에서 일순간 말문을 잃고 경외감에 사로잡혔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 속 인물의 얼굴이 보이지 않기에 감정 이입은 더욱 쉽게 이루어진다. 대자연 앞에선 인간은 화가의 투영이면서 동시에 관람자인 우리의 또 다른 자아처럼 느껴진다.

자연이라는 신의 작품

자연은 독일 낭만주의 철학의 기본 개념이다. 프리드리히가 풍경화가로 명성을 얻은 이유도 독일 북부 지역의 산과 바다, 평야, 계곡과 같은 풍경과 함께 침엽수 나무와 바위, 빙하, 절벽 등을 주요 소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그림4) 1818년 완성된 〈뤼겐의 백악 절벽〉은 그가 신혼 여행을 보낸 뤼겐 섬에 있는 슈투벤캄머 절벽을 그린 것이다. V자 형태의 백악과 너른 바다, 원형의 구도를 이루며 자리한 나무가 웅장하고 시원스럽게 장관을 이루고 있다. 프리드리히의 풍경 속에는 인간 뿐 아니라 항구와 배와 같은 인위적인 요소들도 자연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등장한다. 이들은 자연의 일부인양 매우 작게, 적어도 그림의 중심을 이루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동화된 듯 녹아들고 있다.

프리드리히만큼 눈 쌓인 겨울 풍경을 즐겨 그린 이도 드물다. 그 자체로 신비스러운 자연은 순백의 눈을 덧입음으로써 차분하고 고요한 이미지를 더한다. 수많은 눈 풍경 중에서도 〈오크 숲의 수도원〉은 프리드리히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짐작케 하는 역작이다.(그림5) 프리드리히의 작품에는 교회나 십자가, 수도사, 묘지와 같은 기독교적 모티브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종교적 요소들은 적막감이 맴도는 프리드리히 특유의 겨울 이미지와 맞물리면서 프로테스탄트적인 경건함을 자아낸다. 그는 자연을 절대적 신이 빚어낸 숭고한 세계로 승화시키고 있다.



❹

❶ 〈해변의 수도승〉, 1809년, 베를린 국립미술관 소장
❷ 〈안개 바다 속의 방랑자〉, 1818년, 함부르그 쿤스트할레 소장
❸ 〈지는 해를 마주 보는 여인〉, 1818년, 폴크방 미술관 소장
❹ 〈뤼겐의 백악 절벽〉, 1818년, 오스카르 라인하르트 미술관 소장
❺ 〈오크 숲의 수도원〉, 1810년, 베를린 샤를로텐부르그성 소장

자연 앞에서, 나를 마주하다.

그렇다면 프리드리히의 그림 속 인물들은 대자연에 압도되어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신의 구원을 바라고 선 것일까. 끝 모를 검푸른 바다 앞에 홀로 선 수도승이나 지팡이에 기대서서 자욱한 안개 바다를 굽어보고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일 수 있다. 우리는 숭고한 대자연 앞에서 방향을 잃고 삶과 죽음, 아름다움과 공포를 동시에 떠올리며, 일순간 깊은 종교적 외경심에 사로잡혀 신을 부르고, 낭만적 감수성에 사로잡혀 전율하곤 한다. 위대하면서도 두려운 대상인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낮 작고 나약한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프리드리히의 그림은 그 모든 전율과 두려움의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절망을 이기고 한 발 앞으로 나서려는 결연한 의지임을 보여준다. 자연과 인간의 미묘한 전이, 땅과 바다의 넘실대는 경계, 삶과 죽음을 가르는 간극 앞에 당당히 마주선 인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과 희망을 갈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리드리히가 숭고한 대자연을 마주한 인간의 모습으로 수도승이나 방랑자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유한하고 보잘 것 없는 인간의 삶일 지라도 현실의 욕망과 속박으로부터 결연하게 떠날 수만 있다면 진정한 안식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프리드리히는 자연에 동화된 인간이 도달하게 되는 피안(彼岸)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글 **강은주**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학예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이화여대와 한양대, 계원예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무대와 스크린 ⑥

연극 〈시련〉과 영화 〈크루서블〉

연극 〈시련〉 ©국립극단

아서 밀러는 테네시 윌리엄스, 유진 오닐, 에드워드 올비와 함께 미국 현대 연극을 대표하는 극작가 중 한 사람이다. 아서 밀러가 1953년에 쓴 〈시련〉은 17세기 세일럼에서 일어난 마녀사냥 사건을 통해 '두려움'이 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는지, 그리고 여기에 욕망과 탐욕이 더해지면 어떤 끔찍한 비극이 만들어지는지 선명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일찍이 청교도들에 의해 개척된 도시인 세일럼은 청교도 특유의 엄격한 도덕성과 종교적 윤리를 강조하는 곳이었고, 도를 넘어선 종교적 광신은 결국 1692년 그 유명한 '세일럼의 마녀재판'을 일으켜 많은 희생자를 냈다. 이 희대의 사건은 〈시련〉의 모티브가 되어 지금까지 마녀사냥의 사회적 의미를 비추는 강력한 거울이 되고 있다. 현대의 고전명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서 밀러의 〈시련〉은 희곡으로 발표된 이후 연극으로, 또 영화로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시대의 양심을 일깨워왔다.

아이들의 공포로부터 시작된 비극

모든 비극은 어린 소녀들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692년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작은 마을 세일럼. 엄격한 청교도 윤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 마을에서 어느 날 밤 소녀들이 숲 속에서 발가벗고 춤을 추며 혼령을 불러내는 금지된 놀이를 벌인다. 이것을 지다가던 목사에게 들키게 되자 소녀들은 불호령이 두려운 나머지 악마에 홀린 척 연기를 꾸며댄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었지만 어른들이 소녀들의 거짓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간다.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어찌 할 수 없을 만큼 커진 상황과 마주하게 된 소녀들은 더욱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더 필사적으로 '마귀에 쓰인' 연기를 펼치게 된다. 이는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 광기 어린 피바람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잡혀갈까 두려워 줄줄이 남을 마녀로 몰아대고, 이 틈을 타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원한을 가졌던 이웃을 고발한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짓 증언 속에 사건은 종교적 무게를 지닌 마녀재판으로까지 확대되고, 급기야는 교수대가 등장하게 된다.

미국의 개척 시대, 거친 환경과 투쟁하며 살아가는 와중에 엄격한 청교도적 규범에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사람들의 욕구불만은 거의 폭발 직전에 다다라 있었다. 그랬던 것이 소녀들이 만들어낸 작은 거짓말을 통해 터져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악마와 대항해 싸운다는 확고한 명분 아래, 오랫동안 억눌러 온 이기심을 드러내며 잔인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복수를 시작했다. 집단적 광기라 불릴만한 이 마녀사냥으로 최소한 175명이 감옥에 갇혔고, 이 중 20명이 처형되고 5명이 옥중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오늘날 미국 동부의 작은 마을 세일럼은 마녀박물관과 기념품들이 넘쳐나는 관광도시가 됐지만, 이곳에서 일어난 희대의 마녀재판은 여전히 사람들의 호기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녀 사냥으로 바라본 매카시즘

한편, 작가 아서 밀러가 갑자기 이 17세기의 마녀사냥 이야기를 끄집어낸 데는 1950년대 미국 사회를 휩쓴 매카시즘이 발단이 되었다. 1950년대 미국을 뒤흔든 매카시즘의 광풍은 공화당 상원의원 매카시의 "미국 국무성 안에 적어도 200명 이상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폭탄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냉전의 긴장이 첨예하던 시절, 당시 공산권 국가들의 강한 영향력에 예민해져 있던 미국은 공산주의자 색출이라는 명분하에 무차별한 공포 정치를 펼쳐나갔고, 많은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 예술인들이 이에 반론하려 했지만 공산주의자로 취급 받을 것이 두려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아서 밀러는 1953년 작 〈시련〉을 발표함으로써 17세기 세일럼의 마녀재판이란 연극적 프리즘을 통해 당대의 비극적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이 작품 안에서 사소한 거짓말이 사람들의 이익과 사회구조와 얽히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비극의 과정을 통째로 보여주었고, 당대 미국에 몰아친 매카시즘의 집단적 광기와 비겁한 소시민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시련〉의 작가 노트에서 아서 밀러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역사상의 역할과 유사한, 어떤 경우에는 아주 똑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관객들은 이 연극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괴이하고 무서운 사건들 중의 하나가 갖는 본질을 찾아내리라 믿는다."

실제로 아서 밀러 역시 〈시련〉의 주인공 존 프락터와 마찬가지로 매카시즘 광풍의 희생자였다. 비미(非美) 활동 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소환된 그는 다른 혐의자의 이름을 댈 것을 강요받았으나 이를 거절했고, 그 결과 1차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이다.

진실 앞에 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진실임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과 마주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다. 〈시련〉의 주인공 존 프락터는 일개 무지한 농부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미쳐 돌아가는 피의 광풍 속에서도 결국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고 정의로운 죽음을 택하게 된다. 그것은 그가 고귀한 이념으로 무장한 영웅이어서도, 정의로

연극 〈시련〉 포스터 – ©국립극단

영화 〈크루서블〉 포스터 출처 : daum 영화

연극 〈시련〉의 사진 ©국립극단

움으로 똘똘 뭉친 투사여서도 아니다. 그는 단지 진실 앞에 두렵지 않았던 유일한 인간이었던 것이다. 겁에 질려 자신이 마귀를 보았음을 증언하고, 닥치는 대로 남들을 마녀로 몰아세우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 당당하게 교수대로 나아가는 존 프락터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든다.

현대성을 강조한 무대, 시대성을 부각시킨 스크린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련〉이 우리에게 남기는 파장은 크고 깊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남을 매도하고 몰아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 인터넷 문화가 뿌리를 내린 요즈음에는 사람들의 의견 노출이 과격해지는 한편, 여론을 이용해 특정 대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일도 빈번하다. 그런 점에서 〈시련〉의 마녀사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비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작품은 1982년 극단 성좌의 공연 이후 〈크루서블〉〈시련〉〈도가니〉 등의 다양한 제목으로 꾸준히 공연되어 왔다. 가장 최근에는 윤호진이 연출을 맡은 2007년 예술의전당 공연 이후 2013년 관악극회의 공연이 있었고, 올겨울 국립극단이 박정희 연출과 함께 다시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시련〉은 연극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졌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1996년 니콜라스 하이트너 감독이 만든 버전이다. 대부분의 〈시련〉 공연이 동시대를 비추는 연극의 기능에 의거해 마녀사냥의 현대적 의미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비해, 〈크루서블〉은 영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원작의 시대나 분위기를 그대로 고증해내고 있다. 17세기 척박한 개척마을인 세일럼의 풍경이나 청교도의 억압적인 분위기가 스크린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영화 〈크루서블〉의 갈등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은 주연을 맡은 두 배우, 위노나 라이더와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강렬한 연기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청순한 여주인공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마녀보다 무서운 악녀 아비게일 역을 맡은 위노나 라이더는 욕망의 화신 아비게일을 섬뜩하게 연기함으로써 극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스스로도 배우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이미 〈나의 왼발〉 〈아버지의 이름으로〉 등의 영화를 통해 단단한 존재감과 폭발적인 연기력을 보여준 바 있는 영국의 간판배우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영화 속 존 프락터 역을 맡아 굳건한 신념을 지닌 강건한 남성의 모습을 선보였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에게 〈크루서블〉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인연이 깊은 작품인데, 〈시련〉의 작가 아서 밀러가 바로 그의 아내 레베카 밀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감독을 맡은 니콜라스 하이트너는 영화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기법과 영상장치를 배제한 채, 오롯이 원작의 힘과 이를 연기하는 배우들의 존재감만으로 영화를 이끌어나간다. 덕분에 〈크루서블〉은 영화면서도 마치 스크린 위에 연극 무대가 펼쳐진 듯한 현장감과 밀도감을 선사한다. 그리고 그 생생한 감각은 다시금 관객에게로 이어져 오늘, 이곳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든다. 이렇게 〈시련〉은 무대 위에서, 또 스크린 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이어지면서 공포와 사회의 관계, 진실 앞에 선 인간의 모습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글 **김 주 연**

고려대학교 노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러시아 연극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월간 『객석』에서 연극 담당 기자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연극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연극 칼럼니스트와 드라마터그로 활동하고 있다.

오페라와 영화 ⑥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와 영화 〈멜랑콜리아〉

❶ 장 피에르 포넬이 연출한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밀회장면

독일의 리하르트 바그너(1813~1901)는 후기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다. 후기 낭만주의는 음악적 관점으로 보자면 작품의 거대화, 기존의 음악어법으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지는 것을 일반적 특징으로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세기말의 탐미적, 예술지상주의적 성향을 은연중에 예고하게 된다. 어렵다고 소문난 바그너 오페라(작곡자 자신은 '무지크드라마'로 불리기를 원했지만) 중에서 정점에 도달한 걸작으로 〈니벨룽의 반지〉 4부작, 마지막 작품인 〈파르지팔〉을 꼽지만 그보다 덜 어렵고 보편적인 감동을 주는 것이 〈트리스탄과 이졸데〉(1865)다. 특히 서구 예술가들에게 가장 큰 자극을 주었다는 '에로스'와 '타나토스'라는 대조적인 정서가 한 작품에 구현되어 무척 자극적인 느낌을 준다.

한편 덴마크의 라스 폰 트리에(1956~)는 후배 토마스 빈터버그와 함께 이른바 '도그마 95'를 주도한 것으로 유명한 영화감독이다. 두 감독은 오늘날의 영화가 흥행에만 목표를 둔 거대자본에 의지한 나머지 진실하지 못한 이미지로 도색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진실한 '스토리와 액션'을 표현할 수 있는 영화미학에 집중한다는 취지로 세트와 효과 등 일체의 인위적인 장치를 자발적으로 불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폰 트리에는 그 이전에 영화사를 통해 구축된 온갖 현란한 기교에 능숙한 테크니션으로 불리기도 했다. 따라서 '도그마 95'의 지나친 금기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자 다시금 그 기본적인 정신만 유지하되 스스로 묶었던 족쇄를 풀고 오히려 탐미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전주곡이 영화 도입부를 포함하여 반복적으로 이용된 〈멜랑콜리아〉(2011) 역시 폰 트리에의 절충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결합된 〈트리스탄과 이졸데〉

바그너는 자신의 모든 오페라 대본을 직접 썼지만 완전한 창작은 아니고 대체로 중세의 신화나 영웅담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경우는 13세기 초 고트프리트 폰 슈트라스부르크의 로망스 〈트리스탄〉 및 그 기원이 되는 유사 신화들이 근원이다. 그 원천을 따지면 범게르만족의 일파로 서진을 계속한 켈트 족의 신화다. 켈트족의 주력은 영국까지 건너왔는데 그보다 늦게 도래한 앵글로-색슨족에 현재의 잉글랜드 땅을 빼앗기고 스코틀랜드, 웨일즈, 콘월, 그리고 아일랜드로 밀려났다. 바그너 오페라의 무대가 아일랜드에서 콘월(영국 남서부의 반도)로 향하는 뱃길, 콘월,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오기 이전에 켈트족이 머물렀던 프랑스 서쪽 해안의 브르타뉴인 것은 이 때문이다. 그 계통은 기사도 문학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숭고한 불륜'이다. 즉 자신이 모시는 귀부인에 대한 찬미와 헌신이라는 기사도 정신이 세속적 단계의 사랑으로 변화해 나간 것이다.

콘월의 기사 트리스칸은 콘월의 왕인 숙부 마르케의 새 왕비로 아일랜드의 공주 이졸데를 배로 모시고 콘월로 향하고 있다. 사실 트리스탄은 콘월과 아일랜드의 전쟁에서 이졸데의 약혼자인 모롤트를 죽였지만 중상을 입은 채 신분을 감추고 신비의 치료능력을 지닌 이졸데를 찾아갔으며, 두 사람은 깊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모롤트를 죽인 트리스탄의 비밀을 이졸데가 깨닫게 되면서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다. 그런 가운데 전쟁이 끝나자 화친의 상징으로 두 나라의 왕실이 맺어지게 된 것이다. 이졸데의 시녀 브랑게네는 공주의 깊은 슬픔을 알고 있기에 독약을 가져오라는 이졸데의

❷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가 그린 트리스탄과 이졸데

❸ 트리스탄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졸데

명령을 듣자 오히려 사랑의 묘약을 가져온다. 이졸데는 트리스탄을 불러 함께 죽자고 약을 마시지만 오히려 불같은 사랑의 감정이 솟구쳐 오른다. 그러나 그 순간에 배가 콘월에 당도하고 만다. 낮의 여왕 이졸데는 밤이 되면 몰래 트리스탄의 품에 안기기를 원한다. 두 사람의 밀월을 눈치 챈 콘월의 신하 멜로트는 왕과 함께 사냥을 나서는 척 했다가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밀월 중인 현장을 덮친다. 자신을 길러준 은인인 숙부의 앞에서 불륜을 들킨 트리스탄은 멜로트의 창을 피하지 않고 중상을 입는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트리스탄은 고향인 브르타뉴의 성으로 옮겨져 충복 쿠르베날의 보호를 받고 있다. 여기에 극적으로 이졸데가 나타난다. 이 모든 일이 사랑의 묘약 탓이란 보고를 받은 마르케 왕이 조카와 왕비의 사랑을 용인한 것이다. 그러나 트리스탄은 이졸데의 이름을 간신히 한 번 부르고는 숨을 거두고 만다. 아졸데는 연인의 시신 앞에서 죽음을 통한 영원한 결합을 갈구하며 본인의 의지로 서서히 죽어간다.

트리스탄은 '밤'과 '죽음'에 속한 인물이다. 부친을 출생 전에, 모친은 출생 시점에서 잃고 외삼촌이며 자식이 없는 콘월의 왕 마르케의 양자가 되었으나 그 이름에 지워질 수 없는 슬픔(Triste)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게다가 이졸데를 향한 금단의 사랑으로 고통이 더욱 커진다. 이졸데는 '낮'과 '태양'에 속한 인물이다. 콘월보다 큰 나라인 아일랜드의 공주이자 마르케 왕의 왕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트리스탄과의 사랑을 위해 밤과 죽음을 예찬하는 여인으로 변화한다. 이 이야기의 치명적인 매력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과 죽음의 신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훗날 프로이트가 '삶의 동력'으로 정의한 에로스와 '죽음에 대한 동경'으로 본 타나토스가 공존한다는 점에 있다. 사랑의 묘약(에로스)과 죽음의 비약(타나토스)이 대조를 이루고, 밤(에로스)과 죽음(타나토스)이 함께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한다는 정사(情死)를 꿈꾼다.

소행성 충돌로 인한 지구 멸망을 그린 〈멜랑콜리아〉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노래가 끝나도 관현악 파트가 계속 이어지는 바그너 특유의 '무한선율'이 이용된다. 따라서 노래를 하나씩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대신 막이 열리기 전에 연주되는 1막 전주곡과 2막 전주곡, 그리고 3막이 끝날 때 성악과 오케스트라가 한 덩어리가 된 채 이졸데가 죽어가면서 부르는 '사랑의 죽음'은 명확하게 식별가능하다. 〈멜랑콜리아〉는 시작하자마자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1막 전주곡이 흐르면서 영화의 중요한 이미지들을 보여주면서 시작한다. 마치 오페라의 서곡에 해당하는 부분을 프롤로그처럼 영화에 이용한 것이다. 1부에는 자매 중 동생인 '저스틴'이란 부제가 붙어있는데, 여기서 멜랑콜리아는 저스틴의 지나치게 민감한 우울증을 가리킨다. 2부에는 언니인 '클레어'라는 부제가 붙었다. 여기서 멜랑콜리아는 지구에 근접해오는 위협적인 소행성의 이름이다.

1부는 저스틴의 결혼식 장면이다. 유능한 카피라이터 저스틴은 신랑 마이클과 함께 언니 클레어와 백만장자 형부 존이 18홀 골프장이 딸린 대저택에서 마련한 호화 피로연에 참석한다. 신부복 차림의 저스틴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사실은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파티에 참석한 저스틴의 이혼한 부모도 문제인데, 부친은 젊은 여자를 둘이나 데려왔고, 모친은 딸의 결혼을 축하하기는커녕 찬물을 끼얹는다. 엄청난 돈을 들인 피로연은 점차 어색한 행사로 흘러가고 만다. 결국 암담한 결혼 생활이 될 것이란 현실적 문제에 봉착한 신랑 마이클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저스틴의 곁을 떠나간다.

2부는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인데, 걷는 것도, 먹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우울증이 악화된 저스틴은 다시 언니의 집에 머물게 된다. 클레어는 이런 동생을 극진히 보살핀다. 그런데 클레어는 '멜랑콜리아'라는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 두렵다. 반면 남편 존은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근접 통과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말을 믿자며 아내를 안심시키려 하고, 어린 아들 레오도 멜랑콜리

❹ 밀레이의 그림을 본뜬 저스틴의 이미지

❺ 소행성 충돌 직전의 마지막 장면

아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기대에 부풀어있다. 탈진한 상태로 언니 집에 왔던 저스틴은 멜랑콜리아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차분해진다. 그녀는 멜랑콜리아가 지구를 근접통과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공식발표와 달리 지구와 충돌하여 사악한 인류를 멸망시키리란 걸 내다본 것인데...

〈트리스탄과 이졸데〉 1막 전주곡은 영화 시작부분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즉 우울증과 불길한 소행성을 상징하는 멜랑콜리아의 라이트모티프(바그너가 구사한 반복적인 유도동기)처럼 말이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두 주인공이 사랑의 밤(에로스)을 예찬하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죽음을 동경(타나토스)하는 분위기가 1막 전주곡과 더불어 영화에 잘 구현되어 있는 셈이다. 굳이 의미를 넣어 해석하자면 저스틴은 오페라의 이졸데를, 언니 클레어는 충실한 시녀 브랑게네를 닮았다.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저스틴의 사랑을 얻지 못한 마이클은 마르케 왕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트리스탄은? 바로 멜랑콜리아일 것이다. 자신의 파멸을 부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스틴은 우울증을 굳이 떨쳐버리려 하지 않고 인류 멸망을 초래할 소행성 멜랑콜리아의 충돌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 한편 피터 브뤼겔, 존 에버렛 밀레이, 카라바죠의 회화도 멜랑콜리아를 표현한 개념으로 이용된다.

글 **유형종**

연세대학교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1995년부터 음악과 무용에 관한 칼럼을 썼고 현재는 무지크바움 대표로 있으면서 강의를 하고 글을 쓴다.

노년기 치매(Dementia)의 이해와 음악치료 상담

치매(Dementia)

노인의 정신적 고충 중 가장 큰 것은 건망증(forgetfulness)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보통의 노인이라면, 무언가를 잊었다가 다시 기억해 내기도 하고, 자신이 잊었었다는 것을 자각하며 재차 기억하려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보통의 기억력감퇴가 아닌 심각한 기억의 상실은 노인 당사자뿐만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에 있어서 위협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기억상실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가족과 사회에서의 역할 수행능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노년기 정신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치매는 쉽게 말하면 기억을 포함하여 정신기능의 전반적인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 생애주기에서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통해 습득한 능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치매는 또한 생활 속의 여러 사안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으로, 원인은 각기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한 증상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치매가 발병하면 새로운 생활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상실되며, 이전에 습득했던 정보를 기억해 내지 못한다. 더 나아가 말하기, 쓰기, 대인이나 대물에 대한 인식능력이 떨어지고, 운동기술과 신체 위생관리 또한 어렵게 된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심혈관 질환 또는 파킨슨병이나 약물 남용에 의해 발생되며 발병 시기는 갑작스럽게 나타날 경우와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dementia of the Alzheimer's disease)

기억상실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보통 변주곡을 이해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즉, 주제와 중심흐름은 알츠하이머형 치매(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DAT)지만, 이 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변주가 있다는 것이다. 알츠하이머라는 변주곡은 모든 치매의 핵심 증상으로 나타나며, 다발성 뇌경색(multi-infarct)치매나 알코올성 치매,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의 치매 등과 같은 다른 치매 질병과는 차이를 보인다.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은 뇌 안의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 인지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병으로 초반부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성격의 변화가 야기되며, 시간과 공간의 지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도 한다. 이런 현상들은 심리적인 불안과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로 이어져 생활 속의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된다. 말기에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언어적 장애로 이어져 사망하게 된다. 보통은 발병 후 4년에서 8년 사이에 사망하며(McNeil, 1995), 3년에서 20년 사이, 또는 그 이후에 사망할 수도 있다.

기억상실로 심각한 곤란을 겪는 알츠하이머형 치매(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DAT)환자는 특히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아이러니하게 40년 전에 보냈던 휴가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까지 다 기억하면서도 이틀 전에 누군가 방문한 사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유전적 요인과 뇌의 신경전달물질의 변형 및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축적, 또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을 병인(病因)으로 사료하고 있다.

다발성 뇌경색치매(multi-infarct dementia)

알츠하이머형 치매(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DAT) 다음으로 두 번째 흔한 치매증상은 혈관성 치매인 다발성 뇌경색(multi-infarct)치매이다. 이 치매는 뇌로 향하는 혈류가 제한되면서 발병한다. 특히 뇌 속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국부적 손상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초래된다. 증상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비슷하지만, 진행과정이 단계적으로 나타나며 증상이 제멋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흥분과 우울이라는 심리적인 변화 추이가 극심하게 나타나더라도 기억상실은 미미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어 반사 신경이나 균형 잡기나 보행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특히 고혈압과 관련이 깊어 장기간 혈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 발병하는 관련성을 보인다.

음악치료과정과 피드백의 영역

노년기에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인 적응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노인 스스로가 주변 환경과 상호관련을 지속적으로 맺고 평생 동안 성장에 대한 추구가 있을 때,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상실과 다양한 어려움에 대응하고 방어할 수 있다. 더불어 젊은 세대에게 노년층이 갖고 있는 삶의 경험과 지식 및 지혜를 적극적으로 전수하는 세대 간의 능동적인 수직적 관계교류도 사회적 노화에 대응하는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음악치료의 중재는 치매의 정도와 이에 따른 환자의 기능적 능력에 따라 초기-중기-말기단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겪는 의사소통문제, 주의력문제, 지각의 문제, 심리적 변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음악치료의 세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경험, 체험(Erleben) : 연주, 감상, 음악적 활동

*

2. 대화, 설명, 기술(Beschreiben) :
피드백작업(환류 및 소환기법)

*
3. 재인식(Erkennen) : 감각과 인지를 통한 깨달음
*
4. 내면화(Verinnerlichen) : 문제 직면과 자각 및 각성
*
5. 행위수정(konsequentes Handeln) : 행동의 변화

치료세션의 과정은 먼저 활동을 통한 경험과 체험이 이루어진다. 음악적 활동 자체를 치료효과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리치료중심 과정에서는 이후 반드시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사건과 상황들을 대상으로 Feedback작업(환류기법)이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성원들의 언어적인 설명이나 주관적 체험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며, 때에 따라서 비언어적인 표현들로 재현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Feedback단계는 세션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단계를 통하여 성원들이 집단에서 명료한 반영을 얻고 새로운 인식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위한 각성과 결단의 내적에너지가 응집되기 때문이다. 노인을 위한 세션과정에서도 물론 체험과정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표현의 제한 및 구두적 표현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재인식과정이 이루어지면서 향상과 유지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Feedback작업의 주 대상영역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치료사는 성원들의 신체적 심리적 상황을 파악하고 재인식이 필요한 문제 영역을 살펴서 Feedback을 유도한다.
Feedback작업(환류기법)대상 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무엇을 지각하셨나요?
[인지적-신체영역 객관적 측면]
: 활동을 통해 현장에 현상화한 대상들(활동, 내면의상, 음악 또는 움직임)로 표현된 대상)을 언어로 표현하고, 각각의 사건이나 내용을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술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 안에서 이 대상들은 여러 가지 언어적 模寫(모사)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성원들은 이 과정에서 배우고, 또한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관계를 기술할 때 의미 있는 경험의 팔레트를 확장하고 새로운 표현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주관적 관계는 회고를 통해 환경과 도구 속에서 안정성이 보장 받게 되어 또 다른 자신의 본질을 밝힐 수 있는 신뢰감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감정과 두려움의 상황을 인식하고 극복하게 된다. 원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파악에 어려움을 갖는다면 치료사가 암시적으로 설명하여 표현을 도와준다.

나. 누가 무엇을 했는가? [사회영역의 관계적 측면]
: 이 질문에 대한 표현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관계적 맥락을 명확하게 하도록 도와준다. 언어적인 표현은 그 자체가 목적의 대상이 아닌,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다.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행위의 문제점은 각 성원들의 반영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집단 환경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 될 수 있다. 치료사는 활동과 이에 따른 관계적 표현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영되는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하며, 자칫하여 집단의 가장자리로 내밀리는 성원이 있는지 잘 살피고 보호해야 한다.

다. 무엇을 경험했는가? [정서영역의 주관적 측면]
: 이 질문은 집단의 신뢰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 먼저 각 성원들은 집단 안에서 안정된 자리를 확보했을 경우에 마음속 깊은 개인의 문제를 내 놓을 수 있게 된다. 성원들이 내 놓는 의견이나 해석들은 감정을 동반한 환경에서 다시금 서로에게 반영을 해주며, 동시에 결과와 함께 스스로에게도 대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런 표현의 경험은 각 성원들에게는 선입견을 제거하고, 자칫 쉽게 치우쳐진 각인된 의견에 대해 각성의 기회와 다른 의견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집단음악치료프로그램에서 피드백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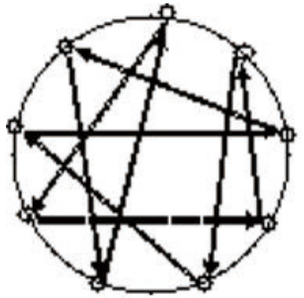


그림 1. 그물 식 연주 형태

그림 1과 같은 '그물 식 연주형태'로 진행되는 음악치료프로그램에서는 성원들 간의 관계교류를 일으키게 된다. 그물 식 연주형태는 다른 연주형태[1]와 달리 행위의 대상자를 직접 선택하는 상황에 발생하기 때문에 단절된 노인들의 주의력과 관계적 교류의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진행의 과정을 그림에서 보듯이 한 구성원이 연주를 시작하여 일정한 순서규칙 없이 다른 한 사람을 선택하여 연주 권한을 넘긴다. 이 권한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임의의 성원에게 전달하여 계속적인 권한의 이동으로 진행된다. 그물 식 연주를 경험한 후에 따르는 환류기법은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 하늘다리 48~50호 음악치료시리즈 컬럼 참조

예를 들어 피드백영역[질문 가]를 유도하여 일어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구두로 재현하면서 객관적인 현상에 대한 지각력과 인지-주의력의 문제를 향상하거나 유지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또한 순차적인 진행의 흐름이나 선택 받을 때와 선택할 때에 관계한 인물과 상황에 대한 견해를 나누면서 집단 안으로 자신의 관계영역을 넓혀 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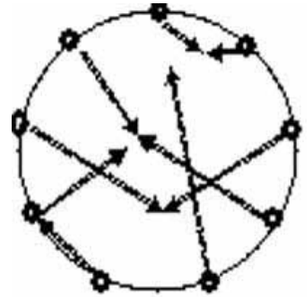


그림 2. 파트너 찾기 연주 형태

그림 2는 '파트너(Partner)연주형태'로서 집단 안에서 한 개인이 여러 구성원 중에 한 대상자와 함께 짝을 이루어 연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짝을 찾아가는 과정의 연주형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은 다른 연주형태들과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건네주면 끝나는 형태나 관계성 없이 주고받는 형태가 아니며, 또한 집단 안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생산하여 던져놓고 바라보는 식의 역동적 형태를 띠지 않는 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정신적 교류가 일어나는 형태로서 서로간의 내면적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피드백영역[질문 나]를 통해 의사소통, 관계교류의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다루어 볼 수 있다.

치료사는 구성원들 각 개인이 어떠한 과정을 겪으며 파트너를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관심을 갖고, 소환작업을 도와주면 좋다. 소환된 과정을 잘 관찰하게 되면 자신내면의 정황과 정신에너지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으며, 더불어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사회관계성에 대한 특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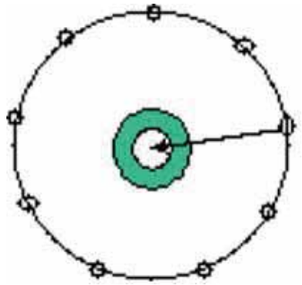


그림 3. 솔로 연주 형태

그림 3은 '솔로(Solo)연주 형태'로서 독주(獨奏)를 의미한다. 성원들이 다른 성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혼자 독무대를 갖는 것이다. 솔로 연주의 주제는 대부분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묘사해 표현하거나 또는 승화하여 창조적인 연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성원들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질 때 진행하면 좋다.

프로그램 실례로 [표 1]의 임상카드를 보면 집단의 마지막 [이별의 단계]에 사용할 수 있는 솔로 연주 형태이다. 연주이후에 피드백영역[질문 다]의 사용은 개인에게 효과적인 심리적 향상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서적 표현을 통해 자기 내면을 살펴보며 심리적인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자신의 감정을 소환하면서 환경과 개체간의 현실인식력에도 중요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임상 적용 치료 카드

이별콘서트	
· 처음 집단에 들어와 지금까지 겪은 과정을 생각하며 연주해 보세요. · 집단 안에서 가장 좋았을 때(슬펐을 때)를 생각하며 연주 하세요 · 특히 고마움(아쉬움)을 전하고 싶은 성원을 위해 연주해 주세요. · 지금의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 앞으로 있을 날을 계획하며 연주해 보세요.	준비물 여러 가지 타악기, (오르프 악기)
목적: 현실인식 & 능동적인 이별	출처: HJS음악치료 발달연구소

글 **하 준 성**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음악치료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Dipl. MT)를 받았다. 독일 공인음악치료사로 현재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음악치료임상교수와 'HJS음악치료발달연구소' 소장, '음악힐링아이' 대표를 맡고 있다.

REST (쉬어가는 곳)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대부도
50 종이미술관

55 Fluxus, 기억하는 백남준

60 독립출판의 세계

상상공작소
‘대부도 종이미술관’
그곳에서 다시 추억과 마주하다

〈대부도를 마음에 담다〉 – 안산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관광의 도시, 안산...!

〈하늘다리〉가 안산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으로 〈대부도를 마음에 담다〉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대부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해솔길, 바다, 풍차, 테마파크, 중생대 공룡발자국 화석 등,
한 번 찾아와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곳이다.
여기에 다양한 볼거리 또한 충분한데, 알고 가면 더욱 좋은 곳, 4개 장소를 소개한다.

글 싣는 순서

① 유리섬(Glass Island)
② 동주염전
③ 정문규미술관
④ 종이미술관

지난 일 년 여간 대부도를 오가며 만났던 풍부한 표정과 몸짓이 오랫동안 기억되길 바란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마주한 대부도 종이미술관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동심을 마주하며, 오래된 추억을 가만히 그려낸다.

해솔길 4코스에서 만난 미술관

유년시절 부모님이 만들어준 형형색색의 비행기를 푸른 하늘에 날리며, 상상의 나래를 폈던 기억 하나쯤은 누구나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요즘처럼 놀거리가 풍족한 시대에 종이비행기는 그저 그런 장난감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여전히 알록달록한 세상을 만드는 소중한 내일일 수 있다.
그래서 찾은 대부도 종이미술관, 흘곶(15통)마을회관에서 시작해 베르아델숭마클럽까지로 이어지는 대부도 해솔길 4코스에 자리하고 있다. 덕분에 대부도가 낯선 이들에게도 길 찾기에 지루함이 없고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된 다양한 즐거움을 경험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서해가 가진 천혜의 자연 속에 가만히 들어앉은 그 모습이 꽤나 정갈한데, 멀리 바라다 보이는 수줍은 서해 바닷가에서부터 시작된 대부도 특유의 향취가 그저 정겹기만 하다. 그래서일까, 그 안에서 생산될 다양한 즐거움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다양한 체험 마음껏 누릴 수 있어

어김없이 찾아오는 주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어디든 떠나고픈 강렬한 끌림이 있다면 대부도 종이미술관을 적극 추천한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 그렇고, 여러 세대가 함께이거나 사랑하는 그 누군가와의 여행에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겠다.

미술관 1층에는 다양한 소품과 작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아트숍과 고즈넉이 커피 한잔과 함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카페를 비롯해 종이공예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굳이 관람 목적이 아니더라도 종이미술관을 찾을 이유는 충분하다.

특히 카페와 이어진 야외조각공원은 아이들에게 더없는 체험공간으로 넓은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놀며 활쏘기, 그네타기, 투호던지기, 팽이 돌리기 등 다양한 전통 놀이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조각작품들을 감상하며 대부도의 청량한 자연환경을 마음껏 누리는 것도 좋겠다.

종이라는 소재의 다양성에 놀라

종이미술관에 들러본 이들이라면 분명 종이라는 소재가 가진 다양함에 반하게 될 것이다. 이는 2층에 마련된 '제1전시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전시된 작품들은 한지를 이용한 일반 작품들부터 화병, 문갑, 서랍장, 요강 등의 생활용품까지 그 소재의 한계가 없어 보인다.

이밖에도 국내외 우수한 종이 작가들의 작품과 매년 종이공예공모전을 통해 배출된 작품들로 구성된 수준 높은 종이공예 예술을 만나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이 열리니 사계절 즐거움이 가득하다.

이어 지하 1층에 위치한 '어린이 미술관' 관람을 시작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로 희망과 웃음을 가족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체험적 전시가 준비된 어린이 전용 종이미술관이다.' 라는 박물관의 설명이다. 하지만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상상공작소'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법할 만큼 다양한 종이 로봇들이 그 늠름함을 자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순수한 동심 가득한 닥종이 인형도 꽤나 볼만한 전시로, 시대를 풍자한 작품부터 정겨운 시골 풍경 및 전래동화의 한 장면 등을 생생하게 재현하여 우리 아이들과 시대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감동을 전달한다.

고즈넉한 이 겨울에 추억 더하기

대부도 종이미술관이 특별한 이유는 자연의 품안에서 예술작품의 감상은 물론 한옥체험까지 가능하다는 것에 있다. 미술관 야외 전시장과 이어진 자연과 하나 되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일연재(一然齋)', 달빛이 아름다운 집이라는 뜻의 '교월당(皎月堂)' 두 채의 한옥스테이가 그것이다.

2014년 10월 건축된 이 한옥들은 현재 우리 전통한옥에 관한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한옥탐방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원도 소나무인 금강송과 1천200도에서 구워진 전통 황토기와를 사용했으며, 건축기법은 나무를 끼워 맞추는 결구법으로 건축됐다. 더욱이 '2015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준공부문 본상'을 차지했다고 하니 그 안이 더욱 궁금해진다.

자연스레 옷깃이 여며지는 계절이지만 따뜻한 햇살 머금은 교월당 누마루에 앉아 잠시 느긋하게 저만치 바라다 보이는 바다와 그 주변 경치를 조망했다. 그리고 이내 이어진 시선은 한옥 마당에 준비된 바비큐 시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을 스쳐간다. 분명, 아니 꼭 그들과 이곳에 들러 맛있는 음식 나누고 도란도란 이야기 꽃피우며 겨울 추억 하나 쌓을 것이다.

실내로 들어서니 자연스러운 한옥의 그것들이 푸근하기만 하다. 창호지 문살도 그렇고 지금은 대부분 사라진 다락방도 운치 있다. 요즘 아이들도 충분히 좋아할 것으로 사료된다. 각각의 한옥마다 공간들은 그 짜임새가 꽤나 쓸모 있어 보이며, 개인부터 단체까지 다양한 인원이 이용이 가능하게 준비되어 있다.

주변 다양한 관광 인프라 연계로 즐거움 두배

대부도 종이미술관은 대부도 해솔길 4코스 길목에 위치해 있어 아름다운 바다 풍광과 한적한 어촌을 여유로이 즐길 수 있다. 또 차를 이용할 경우 불과 5분여 거리에 있는 쪽박섬과 메추리섬도 둘러볼 수 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베르아델 승마클럽은 각종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유명한데, 첨단시설을 자랑하는 실내 돔과 잔디 마당에서 체험 승마체험도 가능하다.

참고로 대부해솔길은 총 7개 코스 74㎞로 주변의 다양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는 물론 여느 지역들과 비할 수 없는 문화예술 공간들도 즐비하니 대부도에서 문화예술을 접하며 새해를 설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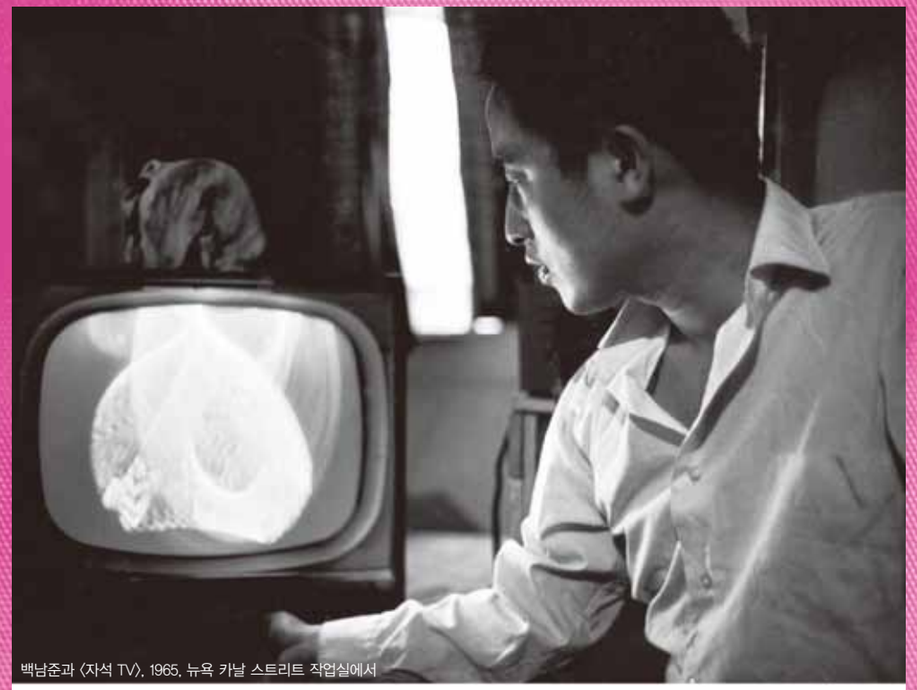
Epilogue

대부도 종이미술관은 기존 정형의 틀을 가진 여느 미술관들과는 꽤나 거리가 있다. 굳이 설명을 곁들이자면 그 어떤 격식이나 지식은 크게 필요치 않으며, 그저 자연에서 즐기고 느끼면 그만이라는 말이다. 더불어 그 안에서 생산되고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즐거움은 세대를 뛰어 넘는 기쁨을 선사한다. 따라서 이 겨울 대부도라는 백지의 캔버스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릴 수 있는 다양한 그림을 그리며 추억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란다.

Travel Tip

- 종이미술관 http://종이미술관.com/ys/
- 문　　의 : 032-887-0606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남로 233(대부남동)
- 운영시간 : 하절기(4월~10월) 9:30 ~ 19:00
  동절기(11월~3월) 9:30 ~ 18:00
  매표마감 오후 5:30
- 휴　　무 :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추석 당일
- 이용요금 : 대인 5,000원 I 소인 4,000 I 유아(3세이하) 무료

Fluxus, 기억하는 백남준



백남준과 〈자석 TV〉, 1965, 뉴욕 카날 스트리트 작업실에서

'비디오 아트 창시자', '미디어 아트 개척자'라 불리던 백남준은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쏟아내며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던 한국의 천재 아티스트다. 1월 29일 그러한 그가 서거한지도 벌써 10년, 이번 지면을 통해 그를 잠시 추억해보고자 한다.

❶

❷

❸

❹

❺

1. 〈TV 정원〉, 1974(2002)
2. 〈찰리 채플린〉, 2001
3. 〈달의 변주곡〉 전시 전경, 2014
4. 〈TV 부처〉, 1974/2002
5 .〈코끼리 마차〉, 1999–2001, 혼합매체, 153x633x293cm

백남준을 추억하다

1932년 7월 20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아버지 백낙승과 어머니 조종희 사이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백남준. 암울했던 시대 일본 가마쿠라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도쿄대학에 진학하여 미술사와 미학, 음악학, 작곡 등을 수학한 그는 아놀드 쇤베르크(Arnold Schoenberg)의 음악으로 졸업논문을 썼다.

이후 1956년 독일로 유학을 떠나 뮌헨대와 프라이부르크 음악학교, 쾰른대학에서 현대음악을 전공하며, 동시대 전위 예술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갔다. 그렇게 음악과 미술의 영역을 넘나들며 기존의 예술적 규범과 관습을 급진적 퍼포먼스로 넘고자 다양한 시도를 전개해갔다.

이때가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한 예술방식을 고민했던 시발점으로 1963년 텔레비전 회로를 변조한 작품으로 개인전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티스트의 길을 걷게 된다.

아시아에서 온 문화테러리스트

1958년 현대 음악가 존 케이지(John Cage)와 백남준의 만남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만하다. 존 케이지의 자유로운 음악적 실행에서 영감을 얻은 백남준은 1950년대 말부터 활발하게 불기 시작한 독일 라인 지역의 음악 퍼포먼스 행사에서 색다른 퍼포먼스를 보여 '아시아에서 온 테러리스트(앨런 카프로)'라는 별칭을 얻게 된다.

이어 1959년 '존 케이지에게 보내는 경의'를 통해 피아노를 부수는 엽기적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바이올린을 파괴하거나(바이올린 솔로)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잘라버리는 등의 행동주의 양식의 퍼포먼스(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습곡)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 후 2년 뒤인 1961년 카를하인츠 슈토크하우젠의 음악 퍼포먼스 '오리기날레'에서 머리와 넥타이에 잉크를 묻힌 뒤 두루마리에 그 흔적을 남기는 괴상한(?) 퍼포먼스 '머리를 위한 선'을 선보이는 등 독일 예술계에 한 획을 긋게 된다.

66
내 인생 중 하나의 행운은
존 케이지가 완전히 성공하기 전에,
그리고 요제프 보이스가
무명일 때 만난 것이다.
그래서 금세기의 두 연장자와
역경 시대의 동지로서 동등하게
교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99

Fluxus, 그리고 백남준

1960년대 초반 미국인 조지 마키우나스(George Maciunas)와의 첫 만남 후 플럭서스(Fluxus)의 창립멤버 중 한명이 된다. 이후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등과 같은 걸출한 예술가들을 만나 독일 플럭서스 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다다이즘의 영향을 받은 플럭서스는 헤라클레이투스가 주장한 '변화 생성의 흐름' 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이벤트와 퍼포먼스, 그리고 음악에 주력하며 세계로 확산된다.

첨언하면 플럭서스는 변화, 움직임, 흐름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됐다.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일어난 국제적 전위예술 운동인 플럭서스는 리투아니아 출신의 마키우나스가 1962년 독일 헤센주(州)의 비스바덴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플럭서스-국제 신음악 페스티벌'의 초청장 문구에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

플럭서스 운동은 복합적인 예술의 형식을 통섭적 가치로 재탄생시켰으며 메일아트, 개념미술, 포스트모더니즘, 행위예술 등과 같은 현대 예술사조의 시초가 되며 여러 예술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비디오 아트의 시발(始發)

지금이야 백남준의 실험적인 예술작업들에 대한 이해가 보편화 되었지만 그가 활동하던 때는 그의 작품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다수였다. 아니 난해해했다는 표현이 오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1963년에 열린 그의 첫 개인전인 '음악의 전시-전자TV Exposition of Music-Electronic Television'의 포스터에 적힌 16개 테제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텔레비전 13대와 피아노 3대, 소음기 등이 배치된 채 1대의 피아노가 요제프 보이스에 의해 파괴되는 파격적 퍼포먼스로, 물리학의 질문을 통한 시간예술로 해석된다. 이 개인전이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정립한 비디오 아트의 출발점이 된다.

한편 비디오 아트의 공식적인 시작으로 알려진 시점은 1965년으로 당시 미국 뉴욕을 첫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6세를 촬영하여, 그 영상을 '카페 오 고고'에서 방영한 때로 미술사에서 공식적인 비디오 아트의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다.

예술의 통섭적 가치실현

백남준은 다양한 분야와의 광범위한 협업을 즐겨했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다. 되레 한계와 영역을 허물어 통섭적 가치로 재탄생시키고 다시 그 범위를 확장시켜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나갔다.

1973년 '글로벌 그루브 Global Groove'에서 존 케이지와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rg)의 작품을 활용한 것이 그랬고, 그러한 그의 작업 방식은 결국 예술 창작에 대한 정의와 표현의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어 다음해인 1974년 'TV 정원 TV Garden'에서 수많은 모니터를 사용하며, 비디오 설치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등 설치 미술의 가능성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연구하고 실현해 냈다. 이후에도 그는 1979년부터 뒤셀도르프 아카데미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계속해 나갔으며, 오늘날까지 그의 명성이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쏟아낸다.

6. 〈삼원소〉, 2000,레이저, 거울, 프리즘, 모터, 스모크
7. 만프레드 레베, 〈장 피에르 빌헬름에 대한 경의〉, 1978

한편 백남준은 비디오 영상 외에도 조각과 설치 작품을 비디오 영상과 결합하고 재편집할 수 있는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개발하는 등 끊임없는 탐구정신으로 독보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하고 실천해나갔다.

백남준 他界, 다시 再生

1995년 백남준은 제1회 '광주 비엔날레 INFO art'전에 기여하게 된다. 또 같은 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설치에 결정적 역할을 주도하며, 한국 미술의 세계 진출에 있어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다.

이후 레이저 기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 가던 중 1996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투병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백남준의 세계' 라는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다. 이때 백남준은 레이저 아트 '야곱의 사다리', '삼원소' 등을 전시하며 예술적 건재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6년 1월 29일, 미국 마이애미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75세의 나이로 별세하였으며 유해는 서울, 뉴욕, 독일에 나눠서 안치되었다.

백남준은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로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실험적이고 창의적 실천을 거듭한 실천적 예술가다. 또 예술가의 역할이 미래에 대한 사유에 있다고 본 그는 예술을 통해 전지구적 소통과 만남을 추구했던 과학자이자 동시에 철학자인 동시에 엔지니어로서 여전히 가장 현대적인 예술가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이에 그를 재생시켜 소환하고자 한다. 그가 떠난 10년 전으로 회귀(回歸)해서 말이다.

사진출처 : 백남준아트센터

나만의 이야기를 담다 독립출판의 세계

종이에 인쇄된 크고 작은 서체들과 이미지가 만들어낸 이야기보따리, 책.
그 형태나 성격도 무궁무진한 책의 세계에 불어 닥친 위기와 회복의 순환.
그러한 출판산업에 독립출판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언젠가부터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다.

독립출판의 매력

나만의 이야기를 보관 · 저장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 컴퓨터 하드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여기서 더해 직접 책으로 만들어 기록하고 공유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독립출판이 그 주인공이다.

언제부터인가 각광받고 있는 독립출판이 국내에서 자리 잡고 개념이 서기 시작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개인이 직접 처리하여야하기 때문에 그 규모 또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현실이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제작 ·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매력적이다. 또한 너도나도 스마트함을 강조하는 세상에서 다분히 아날로그적 감성이 부각된 책이라는 미디어는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며 나름의 구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나도 작가다

독립출판의 가장 큰 특징은 형식과 내용, 그리고 주제까지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 있다. 다만 책의 기획부터 제작 ·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만드는 이 스스로 해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전문 기획자나 작가가 아니라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책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흥미로운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책의 기본은 글이다. 여기에 이미지가 더해지고 디자이너의 편집 과정이 더해지면 책의 기초가 완성된다. 글은 전문가들의 그것처럼 완성도 높은 글이 필요 없다. 그동안 메모지에 끄적거렸던 습작도 좋고 그날의 기분을 기록한 일기도 좋으며, 자신만의 전문적 지식을 정리한 원고도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미지는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도 좋고 직접 촬영한 사진도 좋으니 가급적 나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내 아이의 성장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책을 만든다고 가정하자. 아이를 촬영한 이미지와 아이가 그린 그림을 함께 편집한다면, 따뜻하면서도 행복한 풍경이 자연스레 그려질 것이다.

독립출판의 대중화

얼마 전 한 조사에 따르면 약 8년여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국내 독립출판물 전문 서점이 100여개 정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만 40여 개의 전문서점이 있다. 물론 더 많은 관련사업자들이 생길지는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꾸준한 니즈에 따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중화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사용되었던 POD(publish on demand) 방식은 온라인을 통해 주문받아 개인의 출판물 제작의 전 과정을 진행하는 형태로 독립출판의 대중화에 기여한 예로 기록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출판업계의 혁신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개인 소장용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독립출판물에 대한 유통과정이다. 국내 독립출판이 시작된 초창기엔 이 또한 직접 모든 과정을 관여해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독립출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쇄부터 유통까지 대행해주는 업체가 생겨날 만큼 시장이 다양해졌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심지어 독립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총판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출판물에 얹어 판매해야 하니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결국 발품을 파는 것이 아직까지는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독립출판 문화의 내일

독립출판의 가속화가 진행되면서 전문 소형 출판사와 서점의 등장은 물론 교보문고와 알라딘 등의 대형 서점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존 대형 출판사에서 찍어내던 형태와 방식까지 모든 성향에서의 차별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출간되는 독립출판물만도 400여 종에 이를 만큼 활발한 수준이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독립출판물 페스티벌 '언리미티드 에디션'이 작년 7회째를 맞이하는 등 그 성숙도가 눈에 띈다. 이 축제는 독립출판의 성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예로, 독립출판물 제작자들이 직접 독자와 만나 출판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행사다. 주최는 홍대 앞 독립출판 전문 서점인 '유어마인드'로 올곧이 독립출판과 관련된 예술가와 디자이너, 그리고 작가들이 만들어가는 전문 축제인 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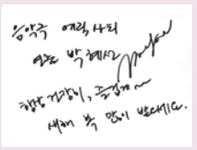
물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하지만 1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했던 2년 전의 두 배에 달하는 18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해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방문 관람객 수만도 두 배 가까운 수치로 늘어나 초기 지하 갤러리를 임대해 '아트북 페어'로 시작할 당시와는 그 규모의 성장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이러한 외적 성장이 아닌 문화예술계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점으로 관심 있게 관찰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밖에 지난해 5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렸던 도서관, 독립출판, 열람실전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전국에서 크고 작은 관련 세미나와 행사들이 개최돼 향후 독립출판 문화에 대한 발전이 기대된다.

NEWS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66 2016년 단원미술관

68 단원미술관 _ 겨울 교육프로그램 운영

70 에릭사티 출연진 새해인사

72 하늘다리 _ 독자들이 보내온 글

2016년 새롭게 도약하는 단원미술관

시민과 함께하는 전시 · 교육 · 체험프로그램 대폭 확대

2016년 개관 4년차를 맞이하는 단원미술관이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선다. 지난해 10월 단원 콘텐츠관(제3관)을 개관한 단원미술관은 3개의 전시관과 단원 김홍도 콘텐츠관, 미디어영상실, 아카이브실, 교육실 등 다목적 미술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면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2016년도는 새롭게 조성된 공간에서 더욱 다양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기획전시를 대폭 확대하여 대관전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미술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주제별 자체 기획전시를 활성화해 단원미술관만의 기획전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 연례 기획전시인 〈포커스 in 안산〉을 지속적으로 개최, 안산 출신 및 안산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우수작가를 발굴 · 조명하고 지역작가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 미술문화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여름과 겨울방학 시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현대미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설치, 영상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매체의 현대미술작품 전시를 통해 친근한 미술관으로 다가서고자 한다.
더불어, 단원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조형성을 추구하는 한국화 작가를 발굴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복합 커뮤니티형 미술관을 지향하고자 한다.

새해 단원미술관의 가장 큰 변화는 교육 · 체험프로그램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단원미술관만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누구나 참여 미술, 인문학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미술관을 지향하고자 한다.
2016년 단원미술관에서 시행되는 단원 인문학 프로그램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된다. 단원 김홍도를 모티브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인문학강의, 옛그림 체험, 다도 및 예절교육 등 체험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통문화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성과 소양을 길러준다. 한편, 단원미술관은 학교 및 기관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과 기회를 확대한 학교연계교육프로그램도 활성화 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전시공간만이 아닌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미술워크숍 등 소통의 공간으로 변모, 전시에 참여한 작가와 소통하고 교감하며 미술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단원미술제는 1999년부터 전국 공모전으로 출발해 신진작가의 등용문으로서 큰 역할을 해 왔다. 단원미술제를 통해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미술지형에 큰 변화를 주었고 지금도 국내 미술계를 이끄는 블루칩과 같은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도 단원미술제는 그동안 축적된 자원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미술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집중조명을 받아 국내 미술계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선정작가공모를 한 층 더 심도있게 운영해 국내 · 외 공모제의 롤 모델로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또한 지역단체 및 예술인들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는 한편 다각적인 작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한편, 단원미술관은 '단원'을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단원의 도시 '안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갈 것이다. 단원학술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단원에 대한 연구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 수집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단원'을 기반으로 한 신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안산의 문화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더불어 3관(콘텐츠관) 단원 아카이브관을 더욱 내실화해 관련 전공자 및 일반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원'의 보고로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단원미술관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성포동)
관람시간 : 동절기 10:00~ 21:00, 하절기 10:00~20:00
입 장 료 : 무료관람(일부 기획전 유료)
문 의 : 단원미술관 481-0504

단원미술관, 겨울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민의 큰 호응 속 4개 과정으로 진행

아이들과 아빠 ·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이 겨울의 설레임을 더하고 있다.
안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단원미술관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미술관 겨울 교육프로그램'을 1월 24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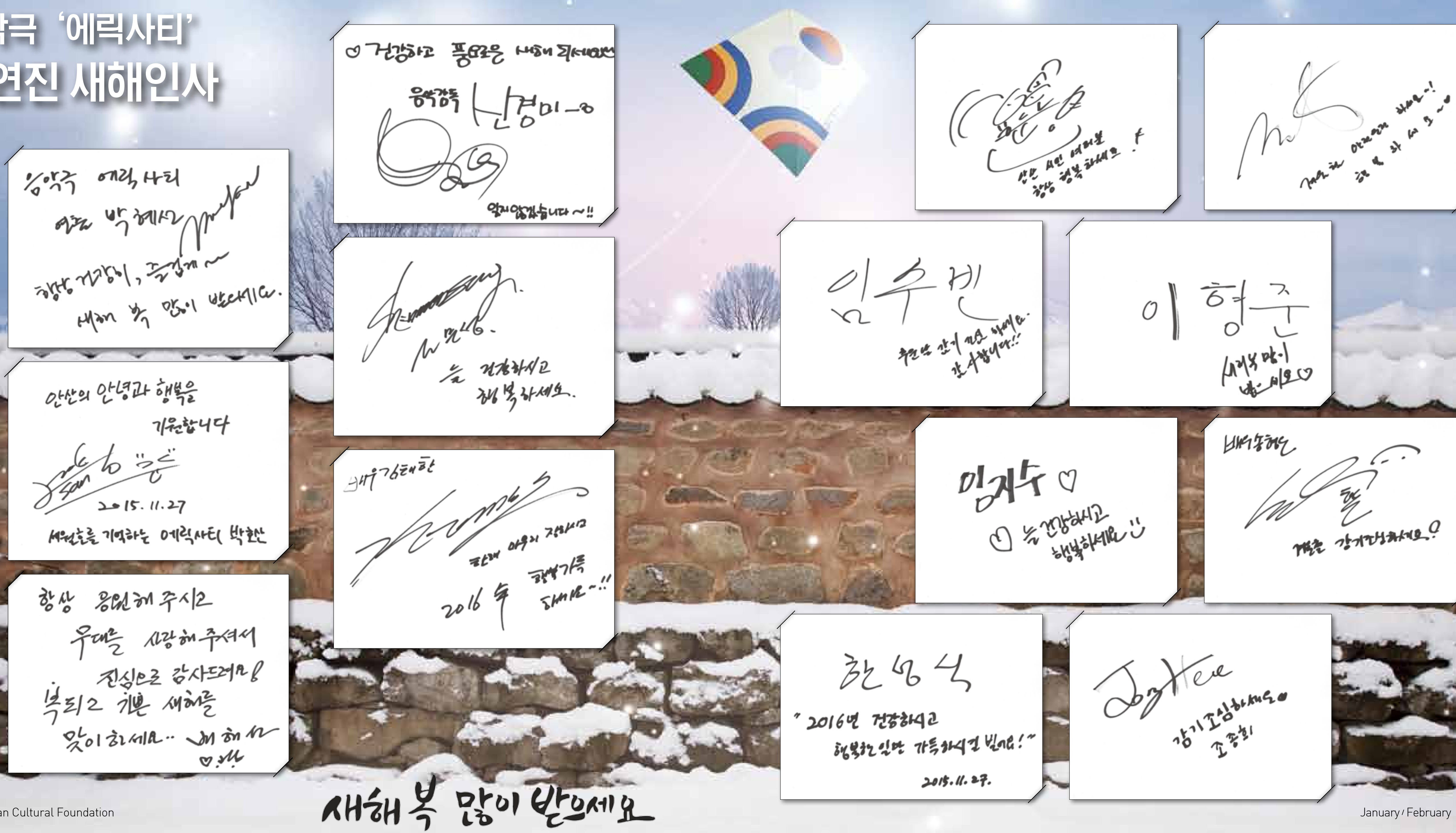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성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인문학 〈단원 읽기〉 강좌였다.
강사로는 국민대 국사학과 홍영의 교수, 국립중앙박물관 민길홍 학예사, 경기도박물관 이원복 前(전) 관장, 서울대 이경화 강사, 문화재청 최경현 문화재감정관이 나섰다.
5주 동안 다섯 강좌로 진행된 〈단원 읽기〉는 안산의 문화예술자원과 우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줬다는 평가다. 또 전 강의 참석자에게는 단원미술관의 예쁜 에코백과 강의 자료집을 선물,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미술관의 두 번째 프로그램은 1, 2기로 나눠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열리는 꿈꾸는 미술관 〈나도! 큐레이터〉로, 미술관 속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역할을 체험해 보는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단원미술관 큐레이터가 직접 멘토로 나서 청소년들에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김홍도 풍속화를 새롭게 구성해 달력을 만들어 보는 〈단원 POP 카렌다 만들기〉와 부모와 같이 연을 만들어 보는 〈단원에서 아빠랑 놀자!〉다.

〈단원 POP 카렌다 만들기〉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1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으며, 〈단원에서 아빠랑 놀자!〉는 1월 24일까지 수시로 열리고 있다.
한편 단원미술관의 이번 〈겨울 교육프로그램〉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음악극 '에릭사티' 출연진 새해인사



〈하늘다리〉독자들이 보내 온 응원의 글

지난 한 해 동안 〈하늘다리〉를 사랑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안산문화재단의 〈하늘다리〉는 2달에 한 번 나오는 책자이긴 하지만 기획부터 발행까지 오롯이 책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40~50여 일이 소요됩니다. 이렇다 보니 바쁠 땐 100%의 열정을 쏟아 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 발행 후, 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애정 어린 내용들을 보면서, '더욱 잘 만들어야 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운동경기에서는 서포터들(응원단)이 번외의 선수이듯 〈하늘다리〉 제작에는 애독자 여러분들이 바로 든든한 서포터들입니다.

이에 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엽서의 내용은 〈하늘다리〉에 보내는 애정 어린 마음으로 생각하고 다음호 기획에 적극적인 반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책을 만들고 나면 늘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자람은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매 번 느끼게 됩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같은 크기의 사랑을 보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지난 한 해 동안 애독자분들이 엽서에 일일이 적어 보내주신 응원의 메시지입니다(내용은 원문 그대로를 인용했지만 내용 전달의 편의를 위해 일부분은 편집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하늘다리〉를 통해 정말 유익하고 재밌는 문화예술 정보와 관련 지역소식을 들을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료로 이렇게 구독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구요. 앞으로도 열심히 구독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잘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최원재(안산시 단원구)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찾아오는 평범한 시간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해준 〈하늘다리〉는 마치 바쁜 하루가 지나가고 찾아온 조용하고 나른한 오후 같아요. 정성껏 공들여 만든 책의 느낌... 낯선이에게도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책입니다."

– 고향기(전남 여수시)

"항상 감사하게 잘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무료구독 잡지이지만 이만큼 알차고 퀄리티 높은 잡지는 보지 못했어요. 문화예술에 관해 관심이 많은 저에게는 더 없이 좋은 정보원입니다. 항상 좋은 잡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양서희(전북 장수군)

"〈하늘다리〉를 통해 잘 알지 못했던 문화생활을 하나, 둘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항상 좋은 공연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도 더욱 좋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윤설(전남 여수시)

"현재도 알찬 잡지입니다. 지금처럼 소중한 정보 올려주세요~"

– 천은경(안산시 단원구)

"내용이 잘 짜여 있어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봅니다."

– 홍재덕(안산시 상록구)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안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산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강구권(대구시)

"앞으로도 이러한 유익한 글, 재미있는 글 많이 써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몸 조심 하시고 좋은 글 위해 수고해 주세요~!"

– 정현숙(충남 논산시)

"음악칼럼 '과정적인 치료'의 이해라는 글을 통해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된 것 같네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나누어 잘 설명해 주어서 쉽게 잘 이해되더라구요. 덕분에 만남이라던지 이별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네요. 〈하늘다리〉의 다음호가 기다려집니다. 더욱 유익하고 알찬 소식 전해주길 바랄게요."

– 왕채연(전남 여수시)

"ASAC News에 나온 단원미술관 기획전 〈신성희 고향에 오다〉 기사를 읽는 내내 빨리 가보고 싶어 엉덩이가 들썩거렸어요. 단지 기사를 읽기만 했는데 마음이 풍요로워진 것 같았고요. 확실히 신성희 씨의 누아주 양식의 회화는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하며 빨아들이는 매력이 있네요. 특히 이번 책에 나온 '평면의 진동, 회화의 결합'은 꼭 가서 눈도장 찍고 오렵니다."

– 정새봄(충남 논산시)

"저는 이번호에서 '깨질 듯 시리고 아름다운 것들의 향연 – 유리섬박물관'이라는 기사가 유익했던 것 같아요. 〈하늘다리〉를 통해 이렇게 좋은 박물관 정보를 얻어 갑니다. 다음호도 기대할게요."

– 양서희(전북 장수군)

"우연히 〈하늘다리〉를 읽게 되었는데 '안산문화재단'의 소식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내용부터 문화인 소개, 공연소개, 여행, 건강소식까지 다양한 기사가 실려 있어 마치 종합교양잡지를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호 '2015단원 김홍도와 떠나는 예술여행'이 소개되어 저도 가고 싶어 신청할까 하구요. 우리 안산이 낳은 천재화가 김홍도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하고 깊이 있는 해설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김홍도를 그의 작품 속 내용까지 알게 되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갖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한 책이 되어 주세요. 〈하늘다리〉를 통해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어 갑니다. 다음호도 기대 할게요~"

– 양서정(전북 장수군)

"이번호 맨 첫장에 실린 〈시가 있는 풍경〉의 시구를 몇 번이나 곱씹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는 가을을 온몸과 온마음으로 물씬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네요. 그러고 보니 매호 〈하늘다리〉는 제게 일상에 지쳐 자칫하면 잊고 지낼만한 주변의 아름다움과 삶의 진정성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알람이 되어주시네요. 〈하늘다리〉 감사합니다!"

– 조향원(경기도 의정부시)

"항상 유익한 정보를 많이 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현태(경기도 시흥시)

"'누구나 작가가 된다'를 통해서 사진의 발달역사를 소중히 챙겨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 이재섭(서울시 중랑구)

"안산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에 대해 소개해 주시는 점들이 인상적이어서 〈하늘다리〉가 앞으로도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문화의 전도자로서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재영(경북 포항시)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호 〈하늘다리〉를 만나게 되니 참으로 감개무량하네요. 〈하늘다리〉 덕분에 그 어느 해보다 한층 풍요로운 생각과 감성을 갖게되어 감사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리고 이번호에서는 특히나 〈초대석〉 칼럼에 소개된 무대미술가 하성옥 님의 기사가 마음에 드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을 다하는 무대미술이라는 새로운 예술분야에 대해 눈뜰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호에도 이번 기사처럼 공연예술분야의 다양한 세계에 대해 소개해 주는 〈하늘다리〉가 계속 되길 바랍니다."

– 이춘임(경기도 포천시)

"우체국에서 책자를 만났습니다. 여러 알찬 공연이 많지만 참석하기는 어려우나 〈하늘다리〉 책만큼은 알차고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김원봉(안산시 단원구)

하늘다리
2016 | 01/02 | VOL. 52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6. 1.1 ~ 2016. 2.10
안산시우체국
제206호

받는 사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안산문화재단 〈하늘다리〉 담당자 앞

1 5 3 5 5

하늘다리

안산문화재단의 하늘다리 애독자 여러분,
새 해 행복한 일들이 많이많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2016년도에도 저희 〈하늘다리〉는 더욱 알차고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독자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한층 발전된 〈하늘다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하늘다리〉에 보내주신 소중한 목소리는
〈하늘다리〉 제작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자 설문

1. 〈**하늘다리**〉 애독자 분들의 연령대는?

① 10~20대 ② 30대 ③ 40~50대 ④ 60대 이상

2. 기존 〈**하늘다리**〉에서 가장 맘에 드는 코너는?

① 공연 캘린더 및 시가 있는 풍경 ② Special ③ ASAC Stage
④ Culture Trend ⑤ Rest & News ⑥ 기타

3. 위 코너 중 빠져도 상관없을 것 같은 분야는(위 보기로 답)?

4. 추가 할 분야를 추천한다면?

5. 〈**하늘다리**〉에 대한 아쉬운 점은(자유롭게 기술)?

6. 기타 〈**하늘다리**〉에 하고 싶은 말은?

※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하늘다리〉 문의 **031-481-4046** (안산문화재단 하늘다리 담당자)
※ www.ansanart.com

Thanks to Sponsorship

문화나누미 '예술타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현재

총 누적금액 *380,197,430*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후원금 전액은 문화소외계층 공연관람을 위해 사용됩니다.
2015년도(11월까지)에는 총 3,209명(17건, 1천8백여만원)의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에 초청됐습니다.

달빛회원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쉐보레 안산남부영업소, 안산대학교, 기업은행 안산점
김동호, (주)정든, (주)우리미래, 안산중앙신협, (주)코레코, 윤영중, BM산부인과, 드림웍스, 삼우도시시설관리(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지성용역사업소, 하라컴즈, 포스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음악동아리 '딴따라',
(주)크레디아인터내셔널, 지구촌문화협회 김윤호, 롯데카드 주식회사

나눔회원
박수연, 바리스커피, 헬로우오복성, 김용민, 김윤성, 이명식, 허연숙, 황정임, 하양숙, 김영균, 박수현, 버들공방
이유석, 이상철, 이시영

보람회원
김원해, 송지현, 백종찬, 조남백, 강재근, 손경오(한국공연예술문화기획), 원스페이스, 이엔씨커뮤니티케이션스
맑음이벤트, 김봉식, 다원뮤지컬, 세방기획, 김종호, 대신전시(김기명), PMC프로덕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라이브아트, (주)케이티파워콤, 이양수, 양미경, 주부연극교실 '유혹', 한진택, 유인철, (주)신원엠에스
(주)가람이엠에스, 클린코리아, 덕영엔지니어링, 김일매, 차종영, SR Ent,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송학천, 보화당, (주)퍼시스케이디, 김명산, 안산시건축사회, 유재학, (주)쇼플레이, 남양숙
아이다운, 주식회사 애드윙컴, 단청닷컴, 김광우, 자연미감, 신바람놀자학교, 한국공예체험문화협회,
And Clay, 아티스토리 미술, 영농조합법인 아이벅스캠프, 젬마트리, 천사부메랑, 김충서
사과와 당근 갤러리, 오형선, 정현욱, 최민석, 거룡전력(주) 홍희성, 이니티움, 남승완

햇빛회원
안산도시개발(주),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기쁨회원
라이프스포츠